朝鮮日報
夕刊
十七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北海問題는 枝葉的 排日絕禁을 强調

張外交部長과의 第一次會見顚末

川越大使로부터 報告

【東京電話同盟】十五日의 川越大使와 張群外交部長과의 會談內容은 十六日 外務省에 到着하얏는데 右에 依하면 北海事件의 調査에 關하야 張外交部長은 十九路軍을 撤退케하야 現地調査의 障碍除去에 努力하겟다는 旨를 確約하엿는데 日本政府로서는 이에 對하야 信賴치안코 方法을 國民政府에 一任하기로하고 이를 黙視만하게되어 十六日의 第二次會見으로부터 에 對하야 如何한 措置를取하얏느냐 또調査障碍除去에 如何한 實效가 잇느냐를 川越大使로부터 再次質問하야 萬若右措置에 不滿한 點이 잇스면 獨自의見解에 依하야 斷行하기로되엇다 그러나 日本政府의 對中折衝 根本方針은 北海事件그 自體보담도그 源流가 되는 排日 抗日運動을 根絶케하야 日中國交調整의 端緒를 發見하려는것이다 그러나 北海事件의 現地調査를 速히 解決하고 또 北中 問題를 第一義로 하야 懸案解決에 努力해서 日中國交의 全面的調整에 進出하려는 川越大使는 이에 重點을置하고 折衝할 方針으로 北海事件의 處理와는 別個로 右根本問題의 解決에 邁進하기로되엇는데 日本政府로서는 南京政府의 誠意잇다는 口頭禪에는 絕對反對로 排日禁絕 日中親善如何에 對한 實績잇는 具體案提示를 求하얏는바 北海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實權者 蔣介石氏의 出馬를 求하야 이徹底的交涉을 開始하려는것이다

川越大使警告를 張群氏聽從約束

兩氏第二次會談內容

【南京十六日發同盟】十九路軍의 日本側現地調査妨害로 北海事件은 一觸即發의 危機에 當面하게되엇는데 川越大使는 十六日午後四時 淸水通譯官을 帶同하고 外交部에 張群部長을 訪問하얏는데 中國側亞洲司長黃宗武氏도 列席하야 川越大使는 먼저 軍艦嵯峨의 現場到着以來이미 五日이되는데 아직 調査員上陸까지 不可能한狀態로 日本海軍當局은 勿論 國民도 다憤激하고잇서서 如何한 重大事態를 惹起할는지도 保障할수업다 今後 如何한 事態가 起하더라도 國民政府의 不誠意에 基한것으로 그責任은 모다 國民政府에 잇다고 嚴重警告를 發한後 다시 『速히 十九路軍撤退를 圖하야 調査進行에 支障이업도록 해주기바란다』고 國民政府의 不誠意한 態度를 詰難하엿다 이에對하야 張群部長은 日本側의 意向은 充分 諒解한다 本問題에 關해서는 이미 再昨日 蔣介石氏에게도 急解決을 打電하야 目下 極力工作中인데 다시 再次 蔣介石氏에게 打電하야 이解決을 求하야 日本側과 協力하겟다고 說明하엿는데 川越大使는 다시 여러가지로 追及하엿다 그리고 川越大使는 九、一八 滿洲事變記念日이 切迫하야 中國各地에 不法暴動의 空氣가 濃厚함을 指摘하야 嚴重警戒를要求하매 張外交部長은 目下 萬全의 策을 協議中인데 外交部로부터 各地方當局에 取締를 命令하얏다고 答하고 同四時半 會見을 終了하얏다

米國、暫定的으로 歐洲分遣艦隊編成

西班牙內亂과 歐洲情勢急迫에

海軍當局十六日發表

【華盛頓十六日發同盟】米國海軍은 一九二九年 軍縮을 理由로 巡洋艦로ㅣ레이號其他를 撤收한以來 大西洋에서 獨立艦隊를 常置하지안코 所謂 合衆國艦隊의 全勢力을 擧하야 太平洋에 集結하고잇는바 西班牙의 內亂과 歐洲政局의 緊迫에 鑑하야 暫定的으로 歐洲分遣艦隊를 編成하기로 決定하고 十六日 如左히 發表하엿다

歐洲情勢에 鑑하야 아더ㅣ 페버피일드海軍少將을 司令官으로 暫定的으로 歐洲分遣艦隊를 編成할 分遣艦隊는 乙級巡洋艦노ㅡ포ㅡ크號 驅逐艦켄인號 하트피일드號 警備艇카유가號와 로ㅡ레이號를 基幹으로함 로ㅡ레이號는 目下 노ㅡ포ㅡ크造船所서 修理를 밧고잇는中인데 同艦이 지브랄타르港에 到着하는 同時에 同艦隊는 成立될터이다

外交國策宣明

佛國務會議서決定

【巴里十六日發同盟】히틀러總統이 나치스黨大會에서 볼쉐비키打倒의 氣焰을 吐한以來 佛國政局은 자못 緊張을 못하고잇는데 佛國政府는 十六日 大統領別墅랑부이에에서 國務會議를開催하야 前後三時間동안 對策을協議하얏다 國務會議의結果 불룸首相은 十七日午後四時 라듸오를 通하야 外交國策을 闡明하기로 決定하얏는데 다시 델보스外相、스피나스經濟相、바스치ㅣ드商相、포올·보올無任相을 聯盟總會의 理事會代表로 알제리아駐屯軍司令官 노게將軍을 모록코新總督에 任命하얏다

佛首相라디오로 獨總統에應酬?

佛蘇援助破棄提言에反對

【巴里十六日發同盟】佛蘭西首相 불룸氏는 十七日現下의 佛蘇한國際政局에處할 佛國外交政策에關하야 重大聲明을 發하기로 되엿다고하는데 傳하는바에依하면 同首相은 라디오를通하야 뉴른베르히大會에서의 히틀러 總統의演說에應酬하야 萬若 獨逸은 爲하야 列國이軍備競爭을 끄친다면 佛國도欣然 여게和合할用意가잇다 그러나 獨逸의 友情과交換으로 佛蘇相互援助를 破棄하라는 獨逸의 提言은受諾할수업다는旨를 言明할터이라한다

左翼諸政黨解散

【부르고스十六日發同盟】부르고스市의 叛軍國防委員會는 左翼諸政黨을 非合體法團體라고 解散을命하고 財産을 沒收한다는旨를宣言하엿다

佛獨通商工作 圓滿히進行

今秋엔政治交涉에

【巴里十六日發同盟】알사우府로부터의歸途 伯林을 訪問하야 獨逸經濟相샤하트博士와會見 獨佛兩國間의 通商關係에關하야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遂한 佛國商相바스치ㅣ드氏는 十六日午後四時四十五分 巴里에 歸着하엿는데 바스치ㅣ드商相今回의 訪獨은 獨佛新通商條約締結에 對한 事前工作을 行한것으로 會談은 圓滿히 進捗된結果 今秋 드듸어 政治的交涉을 開始할터이라고 解釋된다

中央軍二個師 北海方面에移動

【廣東十七日發同盟】廣東省內西南의 茂明附近에잇던 余漢謀의 二個師는 蔣介石氏의 命으로 十六日 北海方面에向하야 行動을 開始하엿다 同地附近의 十九路軍撤退를 要求하고 그後의 治安維持의 責에 任하야 日中關係의 調整과 協力할터이다

그리고 中央軍飛行機는 北海上空을 盛히 飛行하야 十九路軍의 行動을 監視中이라고한다

國府外交部 蔣氏에解決方針電請

【南京十六日發同盟】川越大使의 重大警告에 接한 外交部는 事態의 重大性에 驚愕하야 川越大使張群部長會見後 即時 首腦部會議를 開하야 對策을 協議한다음 蔣介石氏에게 解決方針을 電請하엿는데 本問題에 對한 一切의 措置는 一로蔣介石氏의 意向에달렷스므로 外交部는 全혀 措處에 不明確한 答辯을 反覆할뿐이오 何等 責任잇는 措置를 取할수업는 狀態라한다

에代表出席拒絕코 廿二日總會開催

에國『國籍』完全抹殺

에國代表 聯盟出席可否 英意向如何에依存

【倫敦十七日發同盟】聯盟總會는 目前에 臨迫하엿는데 에디오피아代表出席을 許可하려는 意向이 濃厚하고 佛國政府는 이를 傳하고잇는데 國際聯盟外交界에서는 結局 英國政府의 態度如何로 左右가 決定된다는 觀測을 내리고 如左히 報하엿다

一、에디오피아代表가 聯盟總會에 出席을 許可할 것은 英國政府의 意向에 依存되는바 英國은 總會의 決定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英國政府는 內心은 가만히 에디오피아代表의 總會出席에는 反對할 意向이다

一、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代表가 總會에 出席을 許可한다면 總會에서 伊國代表를 撤退하고 總會에 出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다

【쥬네브十六日發同盟】第十七回 聯盟總會는 二十一日부터 聯盟五十餘個國代表 出席裡에 開會하기로 되엇는데 總會議長이 되리라는 說이 잇다 十五日이 終了된 에디오피아皇帝의 代表 라마스는 十七日 에디오피아의 代表가 總會에 出席하기를 要望하엿다 그러나 聯盟事務局에서는 對策을 取할것으로 보인다 伊太利政府가 國際聯盟에 協力하기를 要望에 對하야 에디오피아代表의 出席을 拒否하기로 된 것이다

北方自治政府樹立

【산·쎄바스챤十六日發同盟】西班牙北部바스크地方의 叛軍은 同地方政府를 樹立하고 北方自治政府를 樹立하엿다

로카르노會議開催 伊太利는受諾

【羅馬十五日發同盟】로카르노會議開催에 關한 英國政府의 提案을 考慮中이던 伊太利政府는 十五日 英國代理大使에 對하야 左의 回答을 手交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十月第三週에 로카르노締約國會議를 開催하는데 原則的으로 異議는 업다

一、但 會議의 開催에 앞서 外交機關을 通하야 充分히 準備를 遂하는것이 必要하다

自給自足充實化次 獨政府一局을新設

【伯林十五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뉴른베르크에서 開催中인 나치스黨大會終了와함께 伯林에 歸還하엿는데 十五日 벌서 黨大會에서 宣言한 自給自足充實化의 實現을爲하야 새로 一局을 新設하기로 하엿다 이 一局은 無任所大臣헤스氏의 監督下에두고 드룹博士指揮下에 一般的科學을 硏究할터인데 具體案은 發表되지 안흐엿다

伊墺洪外相會議

【羅馬十六日發同盟】墺太利外相 슈미트博士는 十六日午後 로카르노 附近에서 伊太利外相 치아노伯과 會見하고 國際情勢에 鑑하야 近日 三國外相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다

人事·集會

▲松尾潔吉氏(朝鮮貯蓄銀行釜山支店支配人) 新任人事次來社
▲生江孝之氏(社會事業家) 滿洲에서열린日滿社會事業協會에 出席하얏든바 入京人事次來社
▲宋相昌氏 牧師 生江氏와同伴來社

白頭山探險記

無樹地帶處處에 무서운峰巒과溝壑

㉗ 徐椿

四十里後잇는無樹地帶에는 西風이 불되 西風만이 불고 잇다는 票가 잇다。그것은 첫재 樹枝가 東쪽으로 方向을 보아 알수가 잇고、물재로는 바람으로 因한 地面의 波紋을 보아 알수가 잇다。密林地帶를 버서나서 無樹地帶로 드러오든 中間에 稀少한 落葉松이 맨條 서 잇는데、그 나무의 가지를 보면 가지의 全部가 東便을 向하야 뻐어 잇슴을 본다。좀더 仔細히 말하면 처음에 西便으로 뻐어나오든 가지까지도 꼽으러져가지고 東向해 잇슴을 본다。이것은 바람에 못이기어 그러케 된것이다。이地帶의 바람은 西風이 主로 불되 甚히 强하게 불고잇다는 票는 첫재 이것으로 알수가 잇다。

다음 이地帶의 地面을 構成한 火山灰는 一見 모래(砂)비슷하면서 모래보다 훨신輕하다。그러므로 바람이 불면 그方向을 따라서 火山灰가 날(飛)고、날면 그移動을 따라서 地面에 波紋을 그리는데 그波紋은 마치 저 밧(田)에 이랑과 고랑이 交互해 잇듯시 一高一低의 水波形平行線으로 되여 잇다。그런데 이水波形平行線은 全部 南北으로 뻐어 잇다。이것을보면 風向은 東風이거나 西風이거나의 兩者間의 그하나일터인데、아까 그나무가지를 보나、또는 풀(草)의 幹枝의 숙으린 方向을 보나 東風이 아니요、西風이라는 判斷이 생기는것이다。

無樹地帶에 드러서 가지고 五里를 채 못 가서 西北으로 白頭山絶頂이 바라다보힌다。바라보니 白雪이 하이하케 덥히어 잇다。昨日午後五時頃에 無頭峰頂上에 올나서서 絶頂을 바라다볼때에는 山色그대로에 數片의 雲이 오락가락할뿐이엇다。그러고보니 어느새 어제시밤에 온 것이 分明하다。昨夜即八月十二日夜에 無頭峰에는 비가 오고 白頭山絶頂에는 눈이 온것이다。가치 하늘에서 떠러지는 物件으로서 엇던 눈이 되고、녹으면 비가 되는것이니까 結局은 兩地間의 氣溫에 그만한 差가 잇다는것을 表할뿐이다。何如間、陽曆으로 八月十三日、陰曆으로 六月二十六日에 皚皚한 白雪을 봇다는것은 나로서도 一生에 처음이거니와 一行人十四名이 全部 처음 보는 光景이라 모다 異常하게 보앗다。

無樹地帶의 入口로부터 約三十里를 간 곳에 군데군데 웅거리가 잇는데、그 웅거리에는 어름(氷)이 꽉 덥히여 가지고 녹지를 못하고 잇는것을 본다。나는 보지 못햇스나、目睹한 延專在學生尹在鉉君의 말을 드르면 이 近方에 사람의 屍體가 하나 노히어 잇는데 한 半쯤 腐爛한것이엇다고 한다。

이에 對하야 京城日報茂山支局長鎌田氏의 말을 드르면 그屍體는 昨年녀름에 自己가 갓슬때에도 보앗는데 亦是 腐爛의 程度는 半쯤 腐爛해 보이드라는것이다。그러고 鎌田氏는 比較的 仔細히 보고 寫眞까지 찍엇다는바 氏의 말에 依하면 한 五十內外 되여 보이는 女子의 屍體라고 한다。그러면 五十이나 넘은 老婆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왓슬까?는 우리의 疑心을 喚起하는 問題일것이나、듯건대 男女를 勿論하고 白頭山絶頂을 차저 가서 致誠을 드리면 長壽를 한다든가? 무엇이 어떠케 된다든가? 하는 信仰上의 傳說이 잇는모양이다。何如間 이老婆는 信仰心에 끌니어 單獨으로 白頭山探險을 왓다가 이곳에서 犧牲된 老婆로 볼것인데、그의 死는 적어도 再昨年以前일것이오、死因을 말하면 가지고 온 食糧이 盡하야 굶어죽엇거나、또는 갑작히 豪雨를 맛나서 어러 죽엇거나、또는 濃霧에 휩싸이어서 길을 못찻고 헤매다가 죽엇거나 이 모든 原因을 一時에 遭遇하야 죽엇거나 하엿슬것이다。이것을 보면 이 近方은 벌서 겨울에 어른 어름이 이 때에 와서도 녹지를 못하며、사람이 죽어도 썩지를 못하고 그냥 잇슴이만치 치운곳인것을 斷定할수가 잇슬것이다。

無樹地帶로 드러서면서 부터는 地形이 몹시 우둘투둘하다。臙脂峰이니 무어니하야 이름 잇는 峰巒도 잇고、또 이름 모를것도 잇스며、더구나 到處에 大地가 짝짝 갈라지듯이 두갈래로 深裂된데가 만타。峰巒、溝壑할것업시 나무는 勿論 업거니와 풀도 別로 볼수가 업다。赤地그대로며、死地그대로다。그러고 그흙빗은 검누룬것이 보기에 마치 성난 사람의 얼골 모양으로 甚히 무섭게 생기엇다。

여러 가치 가는 길이니까 安心하고 가지 萬若、이런곳에 혼자 가라고하면 沿邊左右로 羅列한 그검누룬 峰巒、溝壑만 보아도 벌서 恐怖心에 눌니어서 발이 옴겨 노여지지 안흐리라고 想像되리만치 무서운 光景이다。게다가 하늘을 처다보면 天上의 구름은 해를 덥헛다 벗겻다 하기를 無常히 하고 잇스며 또한 左右를 보면 검누룬 赤地그대로의 峰巒、溝壑에 도 일업는 구름덩어리가 奔走히 왓다갓다하는것을 본데、다만 이 한가지 光景만으로도 사람의 魂을 빼여 내는듯하다。

그러나 이近方은 벌서 無頭峰보다 훨신 놉흔데다。가든 길을 한번 도라서서 東西南三面을 바라보면 昨日 無頭峰上에서 바라보든 千里天坪의 遠景을 그대로 鳥瞰하는 愉快味를 맛볼수가 잇는것이다。(寫眞은 絶頂未達의 無樹地帶에 잇는 無數한 峰巒과 溝壑一總徑)

八面鋒

◇ 華盛頓에열린世界動力會議를 機會로 某某國代表間에 資源分配를爲한 世界經濟會議 召集運動이猛烈하다고。

◇ 人命을犧牲하고 國費를濫費하야 戰爭으로서 植民地分配運動을하는것보다는、茶盞이나 마시며 談笑裡에될수잇는노릇이라면 그야말로『經濟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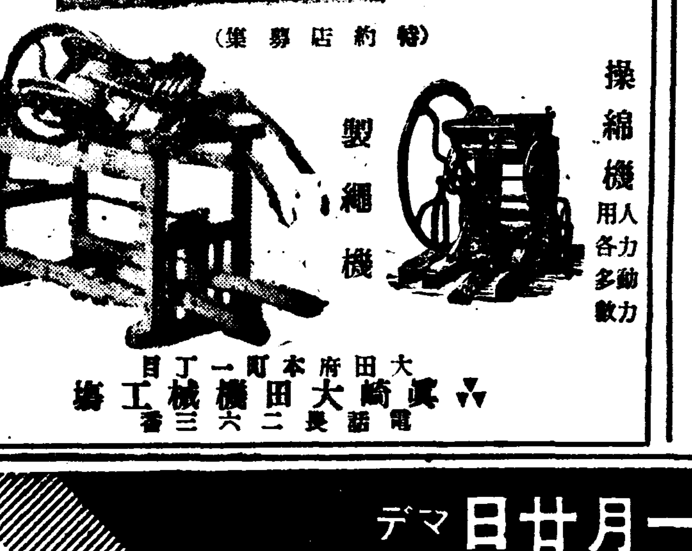
◇ 벌서부터『英國은獨逸의原料要求에對하야 英植民地의一部에對하야 原料에關한機會均等을 認定』하리라는風說。

◇ 獨逸을爲한讓步인지 植民地를爲한善心인지 英國의眞意는 英國이아니면모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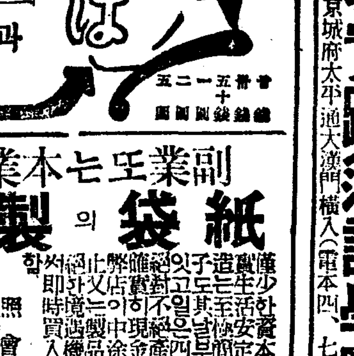
◇ 德川時代의農民政策은『살리지도안코 죽이지도안는데잇섯다』고함은 大阪某紙의말。

◇ 今日의景氣는 조흔듯 나븐듯 晴曇이區區한 요사이日氣와가트니、景氣自體에 感氣 들지경。

堅實하고 돈모이는
직업은 장갑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專屬製造家募集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械機打綿

操綿機 人力 動力 各 多數
製繩機
特約店募集
特許諸機械專門製作
大田府本町一丁目
眞崎大田機械工場
電話長二六三番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簿記珠算科 ◇タイピスト科 九月新學期開始
(學則送呈) 京城府太平通大漢門橫入(電本四、七六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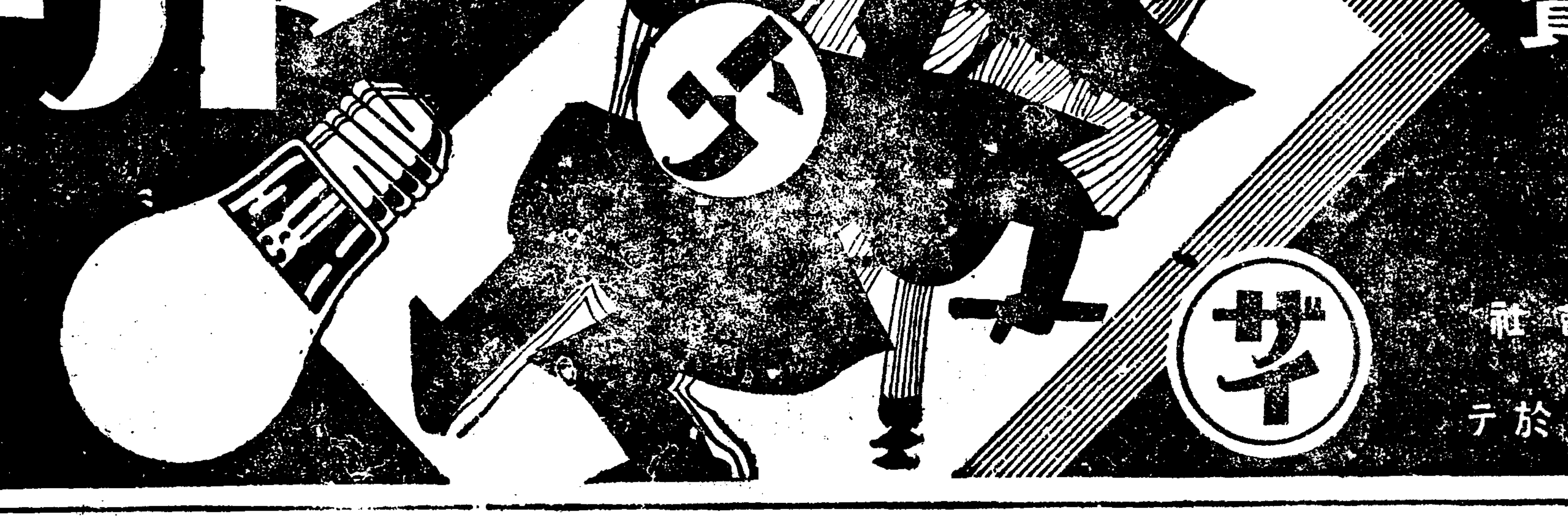

頭痛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 大端에도
一回効散
森田製藥所
本舖 東京 大阪
全國藥店에잇슴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福榮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紙袋의 製造
副業또는本業에
千代田商事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一円



トウラプン
飛ぶ程賣行く
トウラプン
點して經濟
サイラプン
九月廿日ヨリ 十一月廿日マデ
景品付秋季大特賣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九
朝鮮電球販賣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東西電球株式會社京城營業所
東京市麴町區有樂町一ノ三
發賣元 東西電球株式會社
トウラプン連鎖店ニ於テ

點點純情의結晶
第三次로 救護品發送
本社로 收集된 衣類와 白米
卅八個郡에 百七個

헐버슨사람을볼때 측은한마음이움직이며 주림에허덕이는사람에게 한술의밥을 던저주는것이 따뜻한인정(人情)이라면 전연예긔치도안코 상상치도못한 천재지변으로 한사람도아니오 열사람도아니오 수십만이란사람이 집을일코 먹을량식을빼앗기고 입을옷을 이저버리고 문자그대로의 긔아선상에서 절망의탄식만되푸리하는 참상을보고 어찌 타산의돌(他山之石)이라고 공수방관(拱手傍觀)할수잇스랴! 만능(萬能)을자랑하는 현대과학으로서도 어찌할수업는 천재(天災)로 말미암아 밧는 백만의 리재동포를 구하는 힘이야 말로 오직 사람뿐이며 빈자의 한등 장자의 백등을 모히는 적성(赤誠)만이 이것을 구할수잇는것이다 사람의 힘이 자연력에 대하야 개가를 부를 수잇다면 그것은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인류애(人類愛)동포애 의협이 잇슬뿐이다

여기에 일즉이 보지도 못하고 들은바도업는 백만이란 엄청난 리재동포의 처참한모양을 생각하는 눈물이엉키고 피가맷친 한벌의옷 한숨의쌀이 본사에싸이고싸여산데미가트며 지난십사일의 제일차 십오일의 제이차의 뒤를이어 금 십칠일에는 제삼차의 발송을 하게 되엿스니 제삼차의 발송수량은 일백일곱개로 좌긔각지국으로보내엿다

淸州 永同 丹陽 三陟 通川
尙州 江陵 安東 宜寧 統營
咸安 金海 南原 堤川 襄陽
高城 善山 星州 蔚山 倭館
陜川 奉化 楡林 酒川 三浪
津 榮州 慶和 井邑 扶安
梁山 德山 昌原 忠州 全州
密陽 山淸 居昌 榮州

(사진은 발송하는 구호품)

無錢取食者說諭願

십칠일 시내종로서보안계에는시내수은정(授恩町)일백이십삼번지은하(銀河)『홀』강덕춘(姜德春)이가 시내아현정(阿峴町)팔십오번지 문상하(文相夏)등세명에대하야 설유원을 제출하엿는데 사정인즉 전긔 문상하등세명이지난날 십오일밤에 은하『홀』에서 삼십일원십오전어치 요리를먹고 집에가서 돈을 치르겟다고하야 자동차까지 불르게하야 집으로가서 돈이업다고함으로 파출소에까지가서 말성이되다가 드듸여 가옥권리서류를 잽히고 그이튼날 물기로하엿는데 나종에 알고보니 의외에 그서류는 아모 소용업는 엉터리 업는것이엿다는것이다

戰死軍人殉職警官에 愛國婦人會서香火料

애국부인회 조선본부(愛國婦人會朝鮮本部)에서는 십팔일의 만주사변긔념일(滿洲事變記念日)을 마지하고 사변으로 말미암아전병사한 군인군속(軍屬)과 국경에서 순직한경찰관의 유족중조선내에잇는 사람에게는 각지방 향화료(香華料)로 금일봉을보내기로하엿다 그런데 현재 조선내에잇는 군인과경찰관유족수는 다음과갓다 ▲군인유족 경긔도륙명 충남일명 함남 세명 함북이명 ▲경찰관유족 평북오명 함남두명 함남 일명

宣川郡下에도 受療二百餘頭

【宣川】선천지방에 우역이 류행하야 만흔 공황을주고잇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로 소의 사망두수는 우연은점점 가속도로 만연하야 지역이광범하여짐따라 병우의수는 날로늘어가 십사일현재 군축산계의 수를두 수가 이백오십에 달하며 그외에도 보고하지안흔것도 상당히만흔것은 예상하다는데 군축산계에서는 매일 제약(製藥)에대 분망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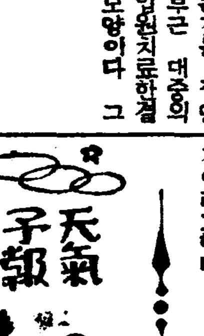
戀愛軍貧運動 失敗하고飮毒

예상(豫想)의 가을을안고 죽음을찾는 사나희=십칠일오전일곱시경에시내서린정(瑞麟町)팔십삼번지김긔태(金基泰)(二三)가『칼모친』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려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곳부근 대중의원(大衆醫院)에서 응급치료한결과 생명은 무사한모양이다 그죽으랴는원인은 사랑하는 녀자와 사랑을계속하기에 금전이부족하야 이를그의 누의에게 요구하엿다가 거절을당하고 극도로 비관한끄테 전긔와가티 음독한 것이라고한다

"石福"事件의餘震
大陸商會를掩襲搜査
市內各地金商에도波及形勢
本町署에서猛活動

십오일아츰 석복사건(石福事件)을 송국한본정서사법계에서는 십육일아츰 재차활동을 개시하고 김경부보(金警部補)는 형사한명을다리고 시내다옥정(茶屋町)대륙상회(大陸商會)에가서 장부일체를 검사하는일편 다수한 증거서류를 압수하고 그상회관계자 김모(金某)를 데리고가서 엄중취조중이다 사건의내용은아즉 판명치안흐나 전일송국한석복사건을 취조중 이에관련된전긔상회의 금괴밀수출의 단서를 어든모양이다 이를계긔로하야 다 금장사들에게 일대검색의선풍이 나붓겨 그들의 리면이 속속폭로되리라하는데 그사건의 추이에따라서는 시내모대지금상사에게도 검거의손이 밋치리라고하야 대단주목되고잇다

天氣予報



槪況 七五四粍의低氣壓은日本海西部에잇서 平元地方을通過하는 不連續線을 同伴하엿스며 七五六粍의 低氣壓은日本內地中部의 南岸에잇서 南西로 不連續線을끌고잇다 七六二粍의 高氣壓은 揚子江流域으로부터 朝鮮及日本內地西部에뻐치고잇다 滿洲와朝鮮은大槪개여잇스나 大連、京仁地方은 때때로 비가나리고잇다 琉球諸島는흐리고 北風이 좀세게불며 西日本은晴 東北地方은흐린편이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흐리고때때로 비가조금내리며 明日은개엿다 흐려스다한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三度一
同 最低	一二度三
今朝最低	一三度
今日正午	一五度

中學生僞裝
下宿專門窃盜
各處에被害가莫大

중학생의 정복정모를 채리고학생하숙을 전문으로 절도행각을하던자가 십칠일시내종로서 사법계에 붓들렷는데 그는 충주(忠州)출생의 김동래(金東來)(二一)로서 공민학교(公民學校)교복을입고 단이면서 지난구월십일일 오전아홉시경에 시내계동정(桂洞町)일백사십번지의오호 박동환(朴東煥)의집에 하숙하고잇는 중학생의방에 침입하야 서적과 시게등을 도적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 하숙옥을 돌아단이면서 학생들이 등교한사이에 그문에달려잇는 학생이름을 불러 자긔가 그의동모인데 동모방에서 좀기다리겟다고는 닥치는대로 도적하는것으로 그피해가수십건에 달한다고한다

"此一戰"에苦杯들면 "링"과는永永訣別
低死必勝의復讐戰압두고
徐廷權選手의悲壯한決意

만천하권투팬의시청을 집중한가운데 조선이나은 세계적권투선수 서정권(徐廷權)군과 강호송기완(宋基完)군의결전은 이십이일밤일곱시부터 경성운동장특설링코ー트에서 열리게되엿다 관중의 흥취를한것이끌을 날의 복수전을압두고 각기연습시간을달리하야 수표정동양권투회도장에서 긴장과 흥분속에맹련습을 거듭하고잇스며 상대자김군의 호언(豪言)을드른 서군의결심도 또한 비장한바잇스니 이에 서군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명고옥(名古屋)에서 김군은링에 비잉좌우전(左右田)에게 판정으로패하엿스나 그당시의 나의 정신상고통은 나로하여금 극히불량한『컨디슌』에 잇게하얏슨 때문임니다 이번 김군에게 도전한것은 지금까지의 울분을 풀고 향토팬에게 깨끗이 씻처버리려는 결심에서입니다 이번의일전에 불행히 지게되면 링과는 영리별을 고할작정입니다

本報讀者 一般席優待

본사후원하에 오는이십이일밤일곱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정권복수권투전은 벌서부터 폭발적인기를 이끌러 만도팬들은 오직이날이 오기를손곱아기다리고 잇는데 이날의관람료는 지정석(指定席)이원오십전 일반석 일원 학생 오십전을 밧기로 되엿는데 일반석에 한하야 본보독자를 우대하기로 되엿다 이십이일부조간에 게재할우대권을 오려가지고오는 이에게는 일원권을팔십전으로 할인하기로되엿다

就職과受驗 에쓰실寫眞은…… 鐘路二丁目中央寫眞館

"特別郵便"의取扱에 局所指定을撤廢
從來는道府廳所在地에局限
今後는無制限取扱

시내특별우편(市內特別郵便)은 종래에는 도청(道廳)소재지우편국에서만 취급하여왓는데 체신국에서는 오는 시월일일부터 그취급우편국을 확장하야 전조선각우편국에서 모다취급하기로 되엿다한다 시내특별우편이란것은 가튼 시내에서 발송도착하는 엽서또는대부분을 인쇄한동문(同文)으로된 유봉(有封)또는 무봉(無封)의편지휴어가튼 내용을가진 제삼종 및제사종우편물을 동시에 백벌이상발송하는데 대하야 그료금을할하게밧는 제도인데 광고나영업안내장(營業案內狀)등의 인쇄물은 한벌(일백십그람까지)에 료금을 이전식밧는것이나 시내특별취급을 하는때는 한벌에륙리라는 헐한료금으로 발송하게되는것이다 이제도가 시골 우편국에까지 통용하게되엿스므로지끌상업가나 기타용자에게 큰편리가 될터이라한다

尹哲換에上告棄却

간도공산당일파로 간도 연길현(延吉縣)농민협회에 가입하야공산주의사상을 선동하엿다는 치안유지법위반사건피고 함북무산군 삼사면유평동(茂山郡三社面楡坪洞)윤철환(尹哲換)(?)에관한상고심건도 공판은 십칠일오전열한시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나리어 원심대로무긔징역형이 확정되엿다

移轉은既定方針
公州法院移轉과知事態度
市民大會를또準備

【公州支局特電】 공주지방법원이전반대에 관하야 공주(公州)시민회에서는 진정위원을파견하야 충남지사에게 이전반대의 진정을하엿는바 동지사는지방법원의 이전은 이미결정되엿스며 그대신 녀자사범(女子師範)을 설치하게 하엿스니 할수업다고 말하엿다 그러나공주 시민으로서는 녀자사범은 그만두어도 지방법원만은 사수하여야한다고 부르지즈며잇다 이들은 오는십팔일오후한시부터 당지극장에서 시민대회를 열랴고 목하준비중이다

敗北者의이서럼
樂地는어데인가
北朝鮮으로移民되여가는
江原道災民列車訪問記

…무심한하늘의 얄미운 작난 두어번에 이천삼백여명의 귀여운 생령과 아울러 일억만원이상에 가까운 재물을 빼아서간 남어지 물ㅅ결놀라고 생긴 비극의 주인공이되는 백만명에가까운 리재민들의 뭇지닥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커다란 과제의 하나가 되여잇거니와 하로하로 밧두해오는 엄동설한을 압에두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이 죽엄의구렁으로 빠저드러갈것은 뻔뻔한 사세라하여 총독부사회과당국의 알선아래 청진(淸津)라진(羅津)등지로 일ㅅ자리를 차저가는 이민단 팔백여명중에서 둘재번으로가는 일단한명은 예정과가티 십칠일아츰일곱시 이십팔분 경성역에도착되엿다。

…아직도 실ㅅ줄을 채다 못부려서 뿌리고잇는 실비속에 차들내린 일행의시선은 모조리『풀래트·폼』속으로 처드러오는 비ㅅ발로 쏠리면서몸을옹숭그린다。그리고 『에그! 비가 또온다。』하고 입에 입울모아 웨친다 아마도 물귀신의 수업는 작희에 번롱을 당해든 쓰라린지나간날의 긔억이 다시금 그들의 머리에 떠올른 까닭인것이다

…『여긔가 어데라우?』……하고차에서 나린 일행은 긔이한 눈으로 안계를 살피면서 서로들 고개를 도리켜 이러케 뭇는다。 그리고나서 『인제 또 얼마나가우?』 『여긔가 우리들 오는데유?』늦하고 생소한 나그네 길을 처음 밟는 그들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한다。 어데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들! 서울이 어떼지도 알지못하고 나린 그들은 글ㅅ자그대로 순박한농민이오 도덕옷만을 찻는 어민인것이다。

…그들의 손과 등에는 짐들을투성이가득 이불한채에 떠러진 함아치와 몇개식이 각각 달려잇다。이것이 그들의전 재산이오 동시 얼마나 잔혹한물귀신의 폭위를당하고 쪼껴 가는길인지?를 이한가지로 엿볼수잇는 것이다。

…『풀래트·폼』에는 쓸쓸하다。그들을 만든 일가부치도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내는 친구도 업다。오직 그들을 안내하고 인솔할 총독부사회과원 두어명이 아침『벤또』를 작만해가지고 와서 점검과 지휘를 하고 한편으로는 애국부인회원 칠팔명이 이백벌가량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식구대로 나누어주고 잇슬뿐이다。그들은 이것을 손에 바더들고엇결에 만족을 띄운다。천진스러운 어린이들은 옷 이뻐주는 어버이를 불르며『압바때때! 엄마 조치!』하고 경중경중뛴다。이것을 바라다보는 어버이들도 딸아서 빙그레 웃는다。

…긔자가 그들 일행중에서제일 헐벗고 가솔을 만히 거느린사람 서너명에게

【記】『당신어데서오우?』
【A】『강원도녕월(寧越)서요。』
【記】『당신은?』
【B】『나두요。』
【記】『또 당신은?』
【C】『나두저ー강원도녕월서오우。』
【記】『당신네들 그래면어데로들 가시우?』
【A·B·C】『저ー긔 저함경도라진인가?하는데루가우。』

…이리하여【A】는 녕월군서면(西面)사람으로 조남산(趙南山)(?)식구는 일곱명인데 집은물론 답배밧천평과 서속밧 아천평이몽땅 물에 휩쓸려 떠나려가서 내외와아들딸 오남매를데리고 먹을것을 차즈려가는길。【B】는 허선(許璿)(?)이라는 사람으로 일곱식구에 내외와아들 사형제에 그리고 장모한사람인데 역시 녕월서 열닷(마지기)논을부치다가 모다 떠내려 보내고 가는길。【C】는 최종수(崔鍾秀)(?)로 내외가아들시형제를 데리고여덟마지기논을 소작해서 재법오붓하게살다가 물난리를만나 가는길인것이。알게되엿다。

…정거장 구내에서 의연품으로 논하주는 옷을 가라입고 끄린물에 리문식당(里門食堂)으로부터 사온 『벤또』를 바더들고서 못치럼 대하는 이밥을달게 먹는동안에 떠날시간이 십분이자 차가 옹지기니 일행은 『이민단』이라는 간판을 등에걸머진채 다시 북으로! 북으로! 쓸쓸히 떠나고 말엇다。(사진은 연두의이민단)

中等庭球聯盟主催
教職員庭球戰
十八日、普成高普에서

京城府內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教職員庭球리ー그戰은 十八日午後四時부터 惠化町普成高普ABCㅅ세코ー트에서 中東、東星、徽文、普成、中央、養正等의七個校가參加한가운데 열릴터인바對陣은다음과갓다

◇十八日=第一次戰
中東―東星(Aコート)
徽文―徽新(Bコート)
普成―中央(Cコート)

◇第二次戰
養正―中央(Aコート)
普成―徽新(BAコート)
徽文―東星(Cコート)

◇第三次戰
普成―東星(Aコート)
中東―中央(Bコート)
養正―徽新(Cコート)

◇第四、五、六、七次戰은 十九日午後一時부터續行

實業野球日程變更

秋季實業野球리ー그戰日程은다음과가티變更되엿다

十七日 京電…府廳 (四時)
十八日 遞信…府廳 (四時)
十九日 鐵道…京電 (一時)
廿一日 殖銀…京電 (四時)
廿二日 遞信…京電 (四時)
廿四日 府廳…殖銀 (四時)
(以上全部京城球場)

鐵道12 遞信1

京城實業野球聯盟秋期리ー그 第三日의 鐵道對遞信戰은 十六日午後四時七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佐田(球)百瀨、富田、佐藤(壘)兩氏審判下에 鐵道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二對一로 鐵道軍大勝하엿다

◇投捕=(鐵道) 森田、東―會田 (遞信)中島、豊田、江里口―石井

遞信	000000100	1
鐵道	41110221[0]	12

恩給 最大長期立替 他에立替한件更히增加立替 遠方은通信契約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讓店 醫藥金物專門店을讓渡하고자하오니有意하신분은來問하시기바랍니다 府內積善町九七 醫藥金物家庭商店

募集 七八歲되는給仕一名과 相當한學力과手腕을가진社員若干名을募集하오니 履歷書를郵送하시압 但仔細한것은 本報朝鮮創刊號에發表하엿스니參照하시압 京城府積善町七三番地 朝鮮社
朝報案內

品質第一等 桃屋의桃罐詰 生것보다맛잇는 白桃、黃桃 東京桃屋商店 各食料品店에잇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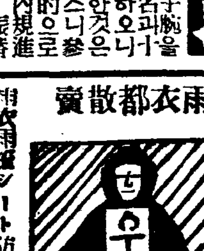
最高의社會・意氣잇는大事業進路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株式會社

京城藥局 振替京城八三六七 電話光3二二三七四 감기、유치경、설사 … 보아젤에는

웃감 韓靑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新案二二二二七號 特許一一二0三九號 新案二一七二四0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 朝鮮鐵工所

雨衣都散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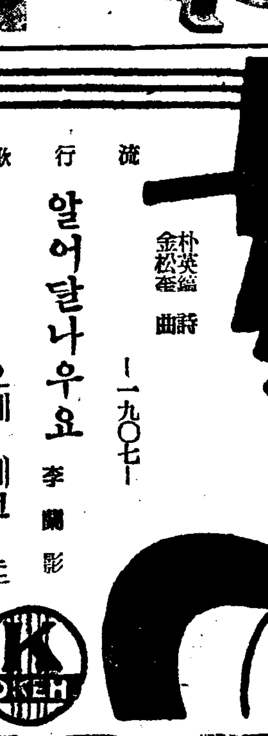
朝鮮防水布製造所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 京城府光熙門外新堂町 電話本局 振替京城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本社京販 電本(2)一五九八

부인성약 益母草엑기스錠 婦人의厥冷 性은모든婦人病의根本 朴昌薰先生監製 月經不順 帶下症과子宮病에 產前產後姙娠中 特約店 本舖 大盛堂藥房 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會葬謝禮 昭和十一年九月十七日 柳生繁雄

京城金弘瑄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도질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セブランス醫專病院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一 檢眼無料 眼 學生

◎急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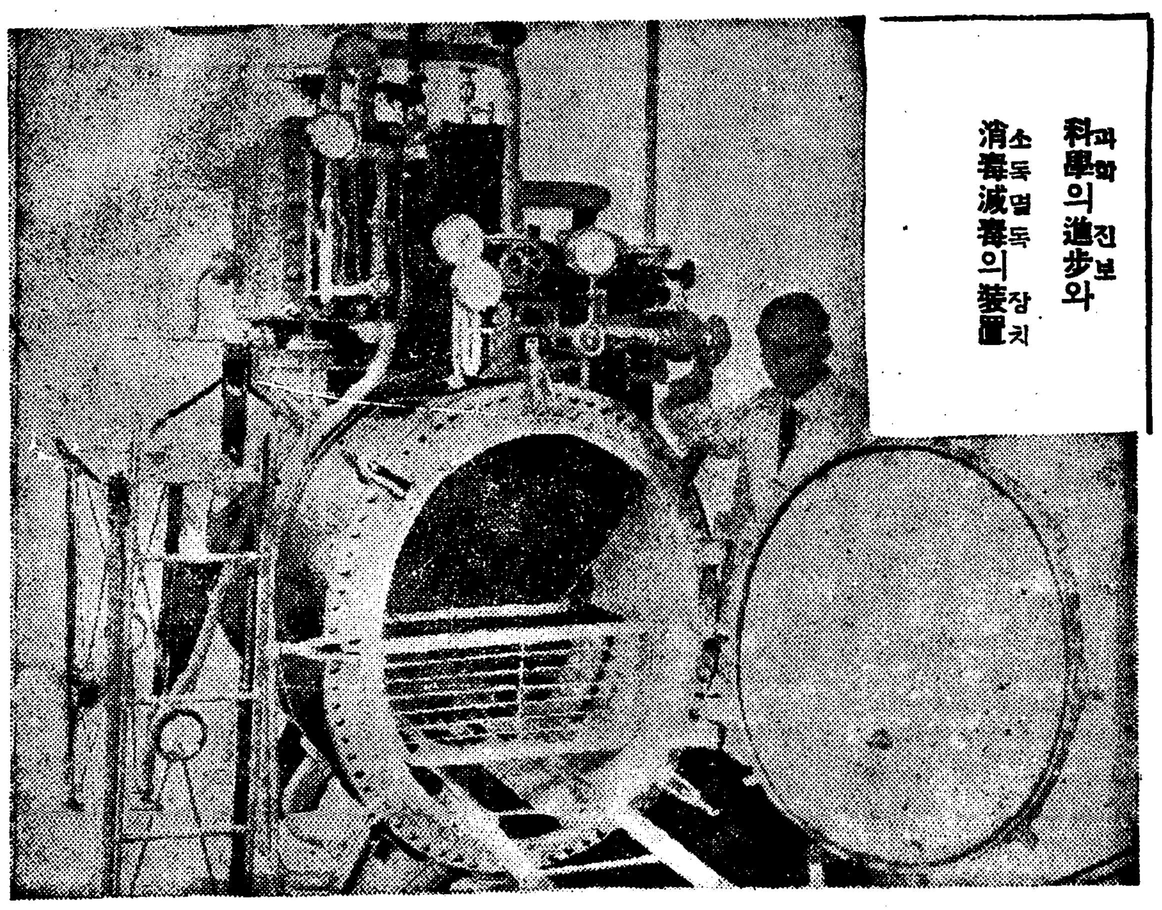
株式會社四海公論社大計劃 支分局長募集 文化奉公의人間的事業收入多大 株式會社 四海公論社 京城竹添町

流行歌 알어달나우요 朴英鎬作詩 金松奎作曲 李蘭影 一九0七 오케ー레코ー드

매독엔 푸로다―를 쓰시오

(PROTER)

나날이 진보(進步)하는 과학(科學)의 위력(偉力)!! 사람에게 해되는 독(毒)은 씨도 안남긴다



과학(科學)의 진보(進步)와 소독멸독(消毒滅毒)의 장치(裝置)

혈통(血統) 정화(淨化)

악질유전병(惡疾遺傳病)의 자손을전멸 당국에서 법률제정에착수

악질유전병을가진자손을전멸하야민족씨(種)를 더욱우량하게하는것은 우생학(優生學)상으로보던지 그민족의 장래발전상으로보던지 절대로 필요하다하야 내무성(內務省)에서는 「악질유전병전멸법」 제정에착수하야 방금보건위생조사회(保健衛生調査會)에서멸종법(滅種法)에대한 조사를급히하는한편으로 내무성위생국 구산농일(龜○孝一)자무관을 해외(海外)에 파견하야 멸종법을 연구하는중이다 그리고 세계문명국중에서 실시한 나라는정말(丁抹) 서서(瑞西) 미국 독일 등이며 그중에도 독일, 나치스가 제일적극적이라한다 악질유전병을 가진사람은 자긔일신을위하던지 자손을위하던지 민족을위하던지 급속히 그병독을 전멸하도록 노력할것이다

매독병은 선천후천두가지가잇는대 선천매독(先天梅毒)은 선조상으로 부터유전하야 병독을바더가지고 나온병이오 후천매독(後天梅毒)은남녀간불결한성교(性交) 나그러치아니하면 목욕탕 침구변소 변기 (요강) 가튼데서전염하는 화류병인대 세상에제일무서웁고 지독한병이다 한번 걸니면칠팔대(七八代)나무죄한 자손에게까지 유전하야적악(積惡)을할뿐아니라일신의 비참한최후를 맛치게되는것이다 신이끈어지고 코가떠러지고눈이멀고 목이찬이나고 등창이나고 사대육신이쑤시고 머리가 빠지고 심하면 뇌매독이되야 천치가되고 정신병자가 되며 급기야에생명을 일케되고만다 독일화류병연구박사의 발표에의하면 세계인류(人類)의 대적은 곳매독이요 우량한 민족의씨를 말니는것도 곳매독이라고하니 참두려웁고끔찍끔찍한 병이다 이병은 전염된후시기와 체질에따라서 곳발생도하고 몃달몃해후에 발생도한다

◎제일긔매독전염된지 삼사일 일주일내로 신에조고만하게 뽀루지가난다 그러나심하지아니한 사람은 난듯만듯하게어느틈에 업서지기도하고 또신두가 헐기도하고 곰기도한다 역시일주일쯤되면 업서진다 그러나 곳피로들어가서 전신에돌아버리는것이다 잘못하면 병이전염된줄 모르고그냥 내버려두는 일이만타

◎제이긔매독신이나 여자음부에는계속하야 나기도하고 차차가래톳이스고 구미가업고 신열이잇고 골이쑤시고 몸이가려웁고 여기 저기 종기가나기 시작하고 눈이희미하고 머리가 빠지고 얼골에여드름갓치 돗기도하고 몸이 느른하고 목이쉬고 코가헐고 붉고 멍울이스고 하야비로서 누구든지 잘알게된다 물론이러한 증세가 한번에 나는것은 아니다

◎제삼기매독 병독이 전신에깁히 깁히들어가서 번성하게되야 연한 뼈까지 (軟骨) 파먹게되는 고로 코가떠러지고 등창이나고 목이아조 쟁기고 목구멍이 뚜러저서 언청이소리를 하고 머리가헐고 눈에백태가끼고 나종에는 멀고 신이둘러빠지고 낭이진물러지고 원몸이 만창이되고 뇌매독이되어 최후를 맛치게된다 그리하야 자손에게 전염하고민족을전점열등(劣等)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질이다 이와가튼 증세에의심이잇든지 매독으로 신음하시는분은 푸로다―를쓰시오

푸로다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 약은환약이오 구갑이나거나 위장을안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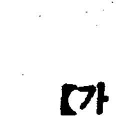
약갑칠원, 오원, 삼원 오래되고 중한분은 보통병과다르니 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이오

매독엔「푸로다―」가 제일인리유(理由) 사루바루산주사(六〇六號)는 일주일 에 한번씩수십주일을두고마저야겨우일시잠복식히는것은이매독이세상에서업서지지아니하고 다시 도지고하는것을 보아도잘알수잇고 또 잘못하면살이 썩고 생명까지위험한일이잇다 결국혈액중에잇는균은생리적으로 흡수된약이아니면속 지아니한다 또 무지한사람은 독한수은(水銀)을 피다가생명을 빼앗기는일도잇고 병이 속으로、드리거서、평생고질로비참한 일생을보내게되며 혹갑싼것을 취하다가입안이헤여지고 속이뒤집히고음식을못먹어큰욕만보고 병도못고치는일이잇스니 한번이런병에걸니는것도 무섭고참혹한일인대불합리(不合理)한 치료는 돈만허비하고 큰고통을밧게되니참 두려운일이다푸로다―는먹는약으로 구감안나고 위장안상하고생리적으로 병독균을멸사식히고사람의피를깨끗하게하는최고귀한약제 만든신발명 최상효력잇는 약이다 첫재로매독균을죽이는성분이가장합리하게만히드러잇고둘재로약원료(原料)가고귀하야다른약보다약갑이좀마느나속히드르니결국싼것이다셋재로약효가속하고넷재로구감안나고위장안상하고부작용업고다섯재로피를맑게하는정혈제(淨血劑)나몸에리(利)가되고여섯재로환약임으로먹기쉽고일곱재로잘흡수됨으로생리적으로뼈끌에백인병독까지업새면 다시도지지아니한다

이추부의 눈물겨운 고백을 드르시오 이세상의 악마는 매독입니다

매독에 제일인푸로다―는 각 지방약업자에게판매하엿습니다 만일업거든 경성신성당으로곳 주문하시면 당일로비밀히보내 드립니다

매독엔「푸로다―」로



【가 약】 칠원 오원 삼원

지방송료 선금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光州支社 支社長 金[illegible]
-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海州支社 支社長 宋[illegible]
- 京畿道水原郡邑南昌里七四 水原支社 支社長 李光[illegible]

京城之部代理店

-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 鍾路三丁目 鄭一藥房
- 仁寺町 富仁藥房
- 阿峴 春山藥局
-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局
-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 鍾路二丁目 白楊堂
- 京畿道之部 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 忠南之部 代理店 天安邑內 徐光年
- 慶南之部 代理店 [illegible]浦 朴[illegible]煥
-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金[illegible]藥房
- 咸南之部 代理店 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 永興郡宣興面 閔[illegible]
- 退 大 津 閔泳[illegible]
- 咸北之部代理店 咸興府本町二四 三省堂藥房
- 惠山線合水驛前 永生堂藥房本店 池潤衛
-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清涼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 京畿道之部 特約店 仁川府外里 中和堂
-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 金浦邑 回生堂藥房
- 開城府鄕橋市 ハヤシ藥房
- 始興郡新東面平[illegible]里 李英
- 永登浦 裴[illegible]
-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illegible]
- 水原郡鄉南面發安里 金佑[illegible]
-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李殷保
- 京畿道水原邑內 金德根藥房
- 京畿道陵谷驛前 陳谷藥房
- 京畿道素砂驛前 和春商店
- 永登浦町五三三 徐順[illegible]
- 楊平郡龍門面新店里 神聖藥房
-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朴均
- 洪城邑[illegible]農園 李康世
- 成歡驛前安成商店 宋千逸
-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 公州郡鷄龍町 權明順
- 全義驛前 鄭寅九
- 忠南溫陽溫泉 溫陽藥房
- 忠北之部 特約店 清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華信藥房
- 忠州邑錦町三八 朴綿陽藥房
- 全南之部 特約店 忠州邑淸水町一二〇 錦北藥房
- 順天邑金谷里 金禎泰
- 潭陽郡大田面谷城里 丁判變
-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玉山堂藥房
-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實業部
- 全北之部 特約店 群山府藤町一四五ノ二 中一藥房
- 金堤邑內 鐘東泰
-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活鏡
-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 益山郡王宮面興岩里 金永鑽
- 慶南之部 特約店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朴[illegible]煥
- 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 咸陽郡安義面錦川里 崔馬[illegible]
- 河東邑 濟生堂藥房
- 晉州邑昭和町大明堂 金三珠
- 晉州邑明治町 金元春
- 晉州邑日出町一〇九 第一藥房
- 晉州邑日出町六二 金成藥房
- 晉州邑榮町 大黑洋洋堂
- 馬山府榮町 ツバメ藥房
- 馬山府石町 李鉉秀
- 居昌邑內 五行堂藥房
- 蔚山郡凡西面斗山里 韓明東
- 蔚山郡青良面開谷里一六 孫秀[illegible]
- 釜山府寶水町善興號 章榮振
- 密陽驛前 朴[illegible]觀
- 南海 松山堂藥房
- 泗川郡西浦面舊坪里 華生堂
- 晉州郡邑明治町五五 金[illegible]玉
- 馬山府富町市場入口 金元春藥房
- 天和藥房
- 平和堂藥房

- 慶北之部 特約店 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基[illegible]
- 慶州郡邑外[illegible]里 [illegible]
- 善山邑本町 金[illegible]
- 醴泉郡甘山面[illegible]里 金李[illegible]
-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 佛國寺驛前 金[illegible]
- 大邱府達城町三〇 [illegible]
- 江原道之部 特約店 [illegible]郡華陽面松金洞 鄭[illegible]
- 金[illegible]郡邑 金化藥房
- 江陵邑內 黃[illegible]
-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化[illegible]商店
- 金城驛前 文[illegible]
- 原州郡富論面興湖里 馬[illegible]
- 洪川郡化村面君[illegible]里 中[illegible]
- 平康郡福溪驛前 丸[illegible]商會
- 鐵原邑中里 [illegible]成堂藥房
- 元山府南村町二四 金元[illegible]藥房
- 元山府廣石町一 東明堂藥房
- 元山府 [illegible]商店
- 甲山郡惠山鎭本町 李[illegible]
- 興南驛前九龍里 [illegible]天堂藥房
- 咸南北靑郡下車書面[illegible] [illegible]
- 咸南馬場驛前 大盛堂藥房
- 黃海道之特約店 載寧邑內 金[illegible]商店
- 鷄井驛前 金[illegible]
- 鳳山郡德在面赤城里 李[illegible]芳
- 海州邑北旭町二五七 孔[illegible]五
- 信川郡龍門面[illegible]里 [illegible]
- 延白郡[illegible]里 吳[illegible]
-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林[illegible]
- 安岳邑內 朴[illegible]
- 載寧邑內 朴[illegible]
- 南川驛前 金[illegible]
- 沙里院本町通 秦和堂藥房
- 平南之部 特約店 平壤府大和町通 石川赤門堂
-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illegible]
- 肅川驛前 金[illegible]
- 龍岡郡海雲面城峴里 鄭[illegible]
- 龍岡郡海雲面龍井里 李亨植
- 安州郡立石市 李觀信 活信藥房
- 平壤府南町四一 柳原藥房
- 平壤府橋口町四〇 尹炳寬
- 平南价川驛前 康[illegible]健
- 平北之部 特約店 碧潼邑內 金弘官
- 滿浦線香山驛前 朴採璋
-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 宣川邑川北洞 福山婦人商會
- 鐵山郡邑內 安東商店
-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種松藥房
-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 宣川邑川南洞 回春藥房
- 新義州彌勒洞 廣世藥房
- 新義州驛前 東亞藥房
- 定州郡大田面雲鶴洞 嵐和藥房
- 雲山郡北鎭市 天壽堂
- 雲田驛前 春山藥房
- 新義州府眞砂町 數世藥房本店
- 咸南之部 特約店 新浦邑內 勝安藥房
-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 永興郡宣寧面三新里 金允吉
- 豊山邑內市 義信商店 洪淳義
- 長津郡長津面上梅田里 姜基順
- 新高山驛前 曾惠藥房
- 北靑邑 壽世局 金裕屹
- 北靑驛前 五六藥房
- 咸北之部特約店 北靑郡[illegible]東書面[illegible] 姜完洙
- 吉州邑內 壽星藥局
- 城津港旭町 曾信堂藥房
- 城津郡鶴南面[illegible]洞 李炳秀
- 雄基港本町 迎春局
-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 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 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 朱乙驛前 北一堂藥房
-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 雄基上本町 十字堂藥房
- 雄基邑本町 仁壽堂藥房
- 雄基邑本町 信生堂藥房
- 城津邑旭町 益壽堂藥房
- 羅南邑初瀨町 萬壽堂藥房
- 羅南邑生駒町 靜園堂藥房
- 明川郡下加面酒浦區內花台市 孫龍濬
- 郡外之部 特約店 名古屋市南區中山町 平和堂
-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片吉古
-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 安東縣平壤通九丁目三番地 吳昌[illegible]
- 滿洲國三江省依蘭縣三姓市南關前 德昌藥房

家庭

「렌트겐」선과 폐결핵 암종의 조긔진단

무서운병도초긔에알면 거이다완치식힐수잇다

『렌트겐』선(엑스광선)이 발견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입니다 의료적방면에잇서 기게가 진보됨을따라 그사용법도대단히 발전되여잇습니다

옛날은 기게가 완전치못하고 『렌트겐』선에 대한지식이 부족햇기때문에 이것을 사용할때흔히 사람이 상하엿스나 요새와서는 기게의설비는 말할것도업고 여긔대한 지식도 충분하게되엿스므로 절대안전한것입니다

『렌트겐』선이라는것이 엇더한것이냐함은 여긔서 간단히말하기어려운 전문적설명이 잇서야할것이나 전압의 차이가잇는『쿨ㅣ리지』관구(管球)속에 전류가통할때 음극선(陰極線)이 대국에 닷게되면 그때에『엑쓰』선이 발생하는것입니다 사진을박을때는 십만『볼트』 암(癌)을 치료할때는 이십만『볼트』라는 전류를통하게함으로 가장 무서운것가티생각하나 결코 위험한것이아닙니다

『렌트겐』선의 리용범위는 실로의료의 각부문에 뻐처잇스나특히 중요한것은 호흡긔(呼吸器)병의 폐결핵 조긔진단(早期診斷)에 업서서는 안될 중요한것입니다

이와가티 폐결핵도 조긔에진단하야 병이잇고업는것을 알게되면 고치기는 문제가아닙니다

의사가 그냥진단하야서는 질때로 알지못하는것도 이것으로진단하면 알아낼수잇는것입니다

폐결핵가튼것은 보통사람이 능히알도록 발전되면 그것은 벌서 초긔를 지나서 이긔에들어가는것입니다 하필 폐결핵뿐만이 아니라 위장병에도 쓰입니다 위궤양, 위암, 가튼것을 초긔에아려내는데는『렌트겐』선을 쓰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걸리면죽는다는 위암도 초긔에 수술하면 쉽게고칠수잇는것입니다

그다음치료방면에도 그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피부약, 관절염, 신경통, 암가튼것을 고치는데 쓰기도 하며 최근에 와서는 부인과방면에 만히 쓰게되엿습니다。

월경통, 월경불순가튼것은 적당한 『렌트겐』선으로 자극을 주어서 고치는것 입니다 그가운데서도 뇌(腦)의 중추에『렌트겐』을 비처서 월경이상을 고치는것은 최근에 발명된 치료방법입니다。

피임으로 목적할때『렌트겐』을 쓴다는것은 이전부터 일반이 아는 일이나 보통 다른병을 진찰할때『렌트겐』을 배에다가 비치면 아히를 배지못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잇스나 사진을 박고 진찰하는것쯤은 그다지 굿센선이 아님으로 결코 신체에 영향되는것은 아니니 안심하야도 좃습니다。

렌트겐사진

사진오른쪽 우에서부터『렌트겐』용고압발생긔의 일부분『렌트겐』으로치료하는장면『렌트겐』으로사진찍은손과 팔、옛날그림의감별 손올배인것 렌트겐치료、구두신은 발올배인것

물통오래쓰자면

『바게쓰』를 오래쓰랴면물을언제든지 만히 너허두고 쓰며 쓰지안흘때는 꺼꾸로 업퍼 두두록 하는것이 좃습니다 쓰다가 조곰 허러진곳시 잇스면 납으로잘때이고 힌에나메루를 칠하면 새것가티 깨끗해 집니다。

처녀가 가진매력 부끄럼과간지럼

다리의힘은 남자보다강해 생명가튼정조의옹호

평범한 색시나 안악네들에게는 흔히 업드려서 자는 버릇이 잇습니다。그 것은 물론 의식적 행동이 아니겟지만 그래도 정조를 보호하려는 예방수단에 벗어 나지 안습니다。또 녀자들은 무엇에 깜작 놀랄때 맨먼저 두다리부터 오그리게 됩니다。그역시 무의식중에나마 정조보호의 행동입니다。하여튼 녀자들은 남자와 생리적으로 다른 것은 물론이요 의복, 장식품도 서로 틀리는만큼 여러가지로 특수한 습관을 가지지 안할수 업습니다。그 습관이 오래두고 전해 와서는 드듸어 생리적으로까지 독특한 발전을 하게 되얏습니다。

위선 무엇보다도 두다리를 오으리는 힘은 남자보담도 녀자가 훨씬 강합니다。그것은 다리를 오으리는 힘줄이 남자보담 녀자가 더 발달된 까닭입니다。해부학(解剖學)에서는 그 근육을 정녀근(貞女筋)이라고 까지 부르답니다。정녀근은 정조를 지키는 녀자의 근육이란 말입니다。아메리카학자가 조사한바로 본다면 근육을 옴즈기는 힘이 백이라고 잡고 남자는 평균六四·四퍼센트밧게 못되는데 녀자는 평균九四·三퍼센트나 되더랍니다。즉 다리를 오그리는 힘으로만 본다면 녀자가 남자보담도 백분의 삼십이나센 폭입니다。녀자가 약하다는 것도 반듯이 진리가 아닙니다。즉 이러케남자보담도 센데가 업지 안하서 잇습니다

×

그럼으로 강간(强奸)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리적으로 벌써 녀자에게는 그 것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잇습니다。물론 아조 어린 계집애에게는 마치 자동차에치거나 길에 미끄러지는 셈과 마찬가지로 멋을 모르고 당할 법도 한 일이로되 이미 정조가 무엇인줄 아는 분에게는 도저히 가능치 못 한 짓입니다。만일 사실로서 불가능하얏다고 변명을 할찌면 그 것은 오직 다칠세라 죽을세라 겁을 집어 먹어서 정조를 허술히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법률학자들의 말도 강간은 미수(未遂)나 잇지 긔수(旣遂)는 업다고 합니다。이런생리현상으로 보아서는 그런 학설이 타당(妥當)치 안할까고도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젊은녀자들은 몹시 간지럼을 탑니다。처녀일수록 더 심합니다。또한가지……。젊은녀자 들은 부끄럼도 몹시 탑니다。그 역시 순결한 분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모다 정조를 보호하고 잇는 한수단입니다。그중에 부끄럼은 더그럿습니다。만일 처녀는 젊으신네에게 부끄럼이 심치안햇든들 간교한 꼬임과 못된 책략에 넘어 가기가 훨씬 더 용이하얏을 것입니다。중년과부가 가장 놀아 나기 쉽다고 하는것도 그네들에게는 부끄럼이 업서저 버리고 오즉생리적본능만이 강하게 옴즈기는까닭입니다

식욕의가을에 경계할음식물들

독잇는버섯과썩은고기 방심하는데서탈난다

가을철이되면 누구던지 식욕이왕성하야 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너무 과하게먹어서 탈을 내는수가잇스니 음식을절조잇게 먹도록하지안흐면 안된다는것은 여러번말 하얏습니다 음식속에 독이드러잇던지 썩어서상한것은 아모리 조금식먹는다하더라도 대번에 중독되고마는것입니다 더욱이 가을에는버섯이만히 나는데 버섯속에도독잇는 버섯이 꽤만흐므로 이것을일일히 분별하야먹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대개독잇는 버섯은 갓이찬란한빗갈로 되여잇고 줄기를 찌저보면 쪽쪽떠러집니다 그리고 소고기 도야지고기 닭고기가튼것은 "썩으면"프토마인"이라는 독이 발생합니다 또한썩지안햇더라도 만드러 노흔지 오래된 음식은 무서운 균이부터 잇스므로 절대로먹지 안흘것이 좃습니다

그외에 빗갈이 몹시 진하고 고흔과자라던지 음료가튼것은 잘팔리게 하기위하야 독잇는고운 것들을보지안코 물감을 드린것이만흠으로 어린아이들의 군것질이나 용용이에는 빗갈조흔 과자가만히 쓰이게됨으로 더욱위험합니다

록청(綠靑)이라하야 남비에 구리쇠독이나서 그것이 음식속에석겨드러가면 왕왕사람의 목숨을 끈는일이 잇습니다 구리도 남비는 될수잇는대로 쓰지말도록 하는것이 좃습니다

구두말리는법

구두를 오래스동안 신으려면 아조쉽습니다。마루끄테나 축대여페다가 감자통이나 석유괴가튼것을 두고 그속에 모래를채워 두엇다가 습긔잇는길거리를 단여온뒤 반드시 버서서 이모래우에 올녀놋습니다 구두밋창이 잘 마르는까닭으로 오래신게됩니다

구두가 속히 해여지는것은 대개 습긔잇슴 밋창을 말리지안코 신는데 원인이 잇는것입니다

″섬 골″

잇기안즌
청솔바위밋
소나무 아래。
바닷바람은
작고 간즈러워
송이버섯은
문틈、문틈
소사 올은다。

(글쓴사람 오장환)

女人劇의밤

主催 京城Y·W·C·A、職業女性俱樂部

「낸의悲劇」 쫀·메이스필드 作 朴龍喆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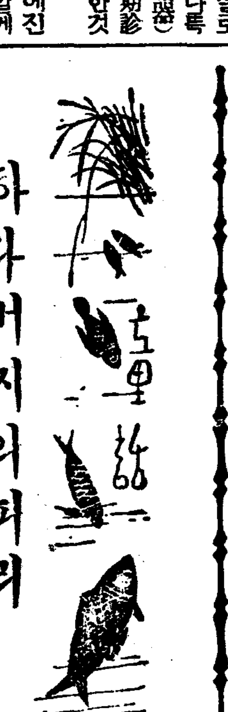
──配役──

개페ㅣ 李宜照 ─ 짜氏ㅣ 李根郞
딕슨ㅣ 林命順 ─ 짜夫人ㅣ 兪貞淑
아ㅣ티ㅣ 李良淑 ─ 디ㅣ 張永淑
롤ㅣ 孫得鎭 ─ 제늬ㅣ 兪明喜
드류ㅣ 朴鳳子 ─ 낸ㅣ 金甲順

時日 九月廿二日밤七時半
場所 府民館
會費 四十五錢(團體十人以上學生三十錢)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하라버지의피리

全尙鎭



동리에서 제일가는 부자하라버지한분이 게섯습니다。돈이만흔부자는 흔이 욕심쟁이고 구두쇠라고 모다들 실려하지만이 하라버지는 욕심쟁이도 구두쇠도아닌 아조 인정이만흔 조흔 하라버지엇습니다。

어느 따뜻한봄날이엇습니다。용길이라는아이가 애기를업고 압시내 다리우에서 조용조용흘러가는 내물을 보고잇섯습니다。서내물은 해가빗처 반작이면서아름다운 노래를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자 저ㅣ쪽에서 하라버지께서 이리로 거러오섯습니다。그리고 용길이엽흘 지나라하시다가

『착한 아해다!』하시면서 용길이머리를 쓰다듬어주섯습니다

『요새아해들은 애기봐주기를실 모다실혀하는데 너는 이러케 잘도봐주는구나! 허……참긔특한일이야』

하라버지께서는 또한번 용길이머리를 쓰다듬어 주섯습니다。

『아ㅣ동리에서 제일가는 부자하라버지로구나!』

용길이는 이러케 생각하면서하라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햇습니다。

하라버지께서는 주머니에서가늘고긴 피리한개를 꺼내섯습니다 그리고

『내 너 이거주마 이것은 내손자를 주라고 햇든것이지만 아니아니 참이동리에서 제ㅣ일착한 아해에게 주라든것이다 네가 이러케도 애기를잘봐주니 아마도 네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모양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라버지 이거 어더케 부는것이예요』

『이것은 이 다섯구녕에다가 손가락을대고 불적마다 하나씩손가락을떼면 아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것이야』

하라버지 께서는 다시이야기를 계속하섯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 남쪽나라 어느섬에서 산것인데 그섬에는 모다 착한사람만이 살고잇슴으로 그곳에서산것도 착한사람에게만주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가개주인이 그러는데 이 피리를불면 그아름다운 소리에끌려서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오색구름을타고 나려온다고 하드라 너도 잘가지고저고개우에가서 어듸한번 부려봐!』

하라버지 께서는 다시한번용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등에 업힌애기를 웃는낫으로 보시드니만 저ㅣ쪽으로 거러가섯습니다。

화라케개인 하날엔 구름한점 보이지안습니다。

고개아레에는 고운꼿이 피어잇섯습니다。용길이는 하라버지께서 가르처주신대로 피리에 손을대고 불러보앗습니다。참으로 아름다운소리엇습니다。조고마한구녕으로 나오는 하나씩하나씩 달른고혼소리가 멀리멀리 저아지랑이속으로 흘너갓습니다。용길이는 몹시깁버습니다。

용길이는 이러케 정성것 열심으로 불면 앗가 하라버지께서 하신대로 하늘의선녀가 네려올지도 모른겟다고 생각햇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에다 대고 부러보앗습니다。피리소리는 푸른하늘저쪽으로 꿈게꿈게 흘러갓습니다。

그이튼날도 용길이는 애기를업고 고개를 차저와습니다。어제보다도 더조흔 일긔엇습니다

『한울나라가 여긔서 어듸쯤될가?아마 바루 이위일지도 모르지』

하늘은 파란보석갓습니다。

『한울나라에는 수정으로맨든데궐이잇구ㅣ 이상스런새와 쫄과 꼿이잇는대ㅣ 하늘나라가 어듸쯤될가? 바루이위가 아니면 저산위에잇나? 그렇저산 또저산넘어 바다위에잇나보다!』

용길이는 이런생각을 하면서열심으로 피리를 부럿습니다。그리소리는 모양도 그림자도업습니다。단지 소리뿐이엇지만 그아름답고 고혼소리는 하늘나라에잇는 선녀들을 불느러가는엽부고조고마한사람들이 그조그마한구녕으로부터 춤추며나와서는 뭇업는 저ㅣ푸른 하늘로 날러가는것가티 생각되엇든것입니다

피리를 불적마다 피리구녕으로부터 춤추며나온 작은사람들은 그저 하늘나라로 다름질처습니다。용길이는 언제까지든지 눈을감은채 피리를 부럿습니다 한마듸한마듸 달른소리를가지작은사람들은 하늘나라 선녀들에게 귀스속을하고 잇는것가티 생각되엇습니다。

등에업핀 애기는 어느틈에지꿈게 잠드럿습니다。

용길이는 별안간 눈을떠습니다。작은이들은 한사람도 업섯습니다。그러나 해가따뜻한 저쪽에는 하ㅣ얀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이리로 거러오고잇섯습니다。용길이는 자세히보앗습니다。

『아ㅡ선녀다。내피리 소리를 듯고 하늘나라에서 나려온선녀다 꼭그럿타。』

용길이는 정신업시 그쪽을꼬고잇섯습니다。그러자 그사람의 모양이 별안간 사라젓습니다。

용길이는 또 푸른하날을 바라보며 피리를 부럿습니다。그리고또 눈을뗏습니다。하ㅣ얀옷을입은 앗가 그사람은 어느틈엔지용길이 아페서잇섯습니다。그러드니 『불보고 생긋 우섯습니다。

『아조 피리를 잘부는데요 그럿치만 아무리 피리를 열심으로 부러도 선녀는 네려오지안는법이예요 하날의 선녀가 따우에나려올때는 누군지 그사람의 혼이 하늘나라로불려가는 것이에요 나는지금이 마을에서 제일 친절하고 마음이조코 모ㅣ든사람이 숭배하는사람의 혼을 차저오라는 하느님의 명녕을받고 네려온것이에요 그리고 그혼을 찻고잇는 것이랍니다。』

용길이는 이소리를듯고 깜작놀랏습니다。물든피리를 뚝끈첫습니다。

『벌서해가 저부럿서요 바람이 차지면 애기에게해로우니 어서집으로 도라가요』

하ㅣ얀옷을 입은사람은 친절이일너주엇습니다。용길이가 빨리 그고개에서 나려왓슬때에는 벌서 그사람은 업서저 버렷습니다。

그런지 잇흘되는 어느날저녁 용길이는 피리를 주신 하라버지께서 별안간 도라가섯다는 소리를 듯고 너무도 놀낫습니다 동리사람들은 모다 도라가신 그하라버지를 슬퍼하면서 언제나 그분의신덕을 칭찬햇든것입니다。

″끗″

曆

九月十八日(金) 陰丙子八月小(初三日)

癸卯·金·九·破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ウテナ水白粉

우테나

自然美를살닌다

新鮮한季節의感觸ㅡ淡化粧

流行의主流를 恒常引導해나가는 우데나化粧料中 鮮麗八種의 우데나水白粉은 어데까지나 自然美를强調하기爲하야 創製되엿습니다

柔軟하고鮮麗한 色感!
잘피고 잘먹는다!
그윽하게終日香氣롭고밀리지안는다

美粧과同時에整肌作用이잇기때문에 地肌를養生하고色을히고 결이곱고 餘分의땀、脂肪을 解消식혀서 化粧을 아름답게하는多樣性効果가잇스므로 美粧에對한要求를充分히 다함으로 好評입니다

水白粉에 우데나雪印크림으로 우에서부터 누르십시요。 그리하면더욱 立體的인化粧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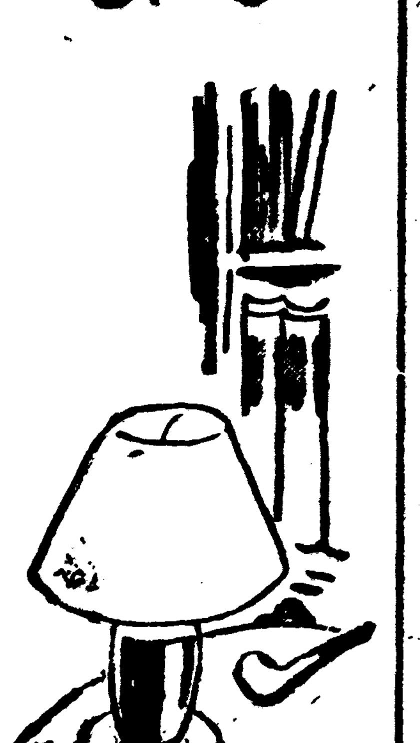
鮮麗な八色の花束

白色 肌色
濃肌色 健康色
ナチュレル オークル一番
ブルン オークル二番

¥.53 ¥.32

製造元 ウテナ化粧料 本舖 東京 久保政吉商店

學藝



最近의 批評的傾向 (三)

一批判中傷一

白鐵

文藝批評의 型態에는 過去의 文學史的事實을 通하야 藝術的으로 現實問題에 到達하는것과 그와 反對로 現實問題를 위하야 一種의演繹的方法으로서 過去의 文學史上에까지 그批評의 基礎를 要求하기爲하야,

逆行하는 型態의 두가지 型態가잇다. 前者는 文學史的批評型態요 後者는 全혀 저널리즘의 批評型態로 理解할 수잇다고본다。

여기서 文學史的批評은 過去의 史的事實을 어데까지 그事實의 順次와系統에 忠實하는데서 文學史的體系를 樹立하는것인 그의 課題인 代身에 저널리즘의 批評은 往往히 史的批評과함께 文學史의 事實을 追求한다고하더라도 그것은 前者다 同一한意味에서가아니고 主로 現實의 問題를 例證하기위하야 主題가要求하는限에서 그必要한史實만을 史上에 追求하는것이다。

文藝批評에잇서 이두가지 形態를 是認한다면 近年에 잇서 내가 努力하고잇는 그人間描寫論이란 主로 後者의 形態에屬하는 批評體系이엇다나는 同論의出發을 過去의 文學史的研究에서 부터 한것이아니고 現實的으로 現代文學이 人間을 無視하고 喪失한데 對하야 그것을 描寫하고 探求하는것이고

課題라는것을 提唱하는곳에서부터 出發되엿든까닭이다 그런까닭에 나의 그人間描寫論이 往往히 過去의 文學的事實의 例를 屢次 引證한일이 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一一히 文學史的事實을 研究的으로 追求하고 거기서 史的體系를 樹立하려는것이아니고 단순히 나의 人間描寫와 그探求의 現實的 意義를 一層堅固히 主張하고 今日文學의 課題로서 一層 切實化하기때문이엇다 그럼으로 나의 同論이 처음부터 一定한 理想的體系의 樹立을目標한것이 勿論이라고하더라도 그것은 本來 史的으로 樹立되는理想的體系가아니고, 오직 同論을 現實問題로서 現實的으로 追求하는데서 同論의 課題의 意義를 밝키려고하얏다

月前 李軒求氏가 그의『理想的體系의樹立途程』가운데서 나의人間探求論을 批判할때에는 批評形態에 對하야 나의論文의批評形態를 究明하지안코 도로혀史的體系를 重要視하는

側面에서加評햇든 까닭에 그批判은 全面으로 正鵠에 벗어난것가티 생각되엿다

部分的問題에 잇서 李氏가나의論에 對하야 指摘한바와가티 한개의 命題를 學者의 研究的立場에서『幾多의 文獻(?)을 通하야 科學的 叙述을 피하지못하고『術語와 用語로서 度量하려는 操急性』이라는 指摘等에 잇서도 亦是 몬저 指摘한 意味에서 거기에는 同論이저널리즘의 批評形態인 까닭에 그學者的 研究를 期하기가 極히 困難하다는 事實이 潛在되여잇는것이다 웨 그러냐하면『幾多의文獻』을通하야 學者的 研究를 系統하는 동안에 同問題에 對한 現實的意義와 時代的要求와 저널리즘의 興味는 全部 流失되여 버리는 때문이다 그럼으로 一般的으로 저널리즘的 批評에는 그沈着 健實性等의 學者的研究의 態度에 比하야 [illegible]신 操急性과 感激性이 同伴되는것이 特徵이며 따라서 그中에 加入된 史的事實도 그것은 學者의

調査實錄의 것보다는 例證하기위한 그論題의 現實的意義에 切實味를加하고 그 主張의 根據를 深化시키는 刺戟[illegible]되는것이다 그意味에서 내가 例論中에서 過去의 史實을 引用한것을 指摘하야 李氏가『어찌도 저러果 東西古今의文豪 思索家가 모도다氏의 오늘의 이論文을 構成하기위한名句 華麗만을 남겨놋는것인가』라고 非難한것도 果然 내가 引證한 그모든名句와 事實에는史的史實로서 往往히 矛盾되는事實이가 잇다고 하더라도 그引證이 現實的으로 要求되는 課題를追求하는 途程에 刺戟을 주고 暗示를 豐與한點에 잇서는 充分히 現實的意義를 保持한것이라고 생각이되다

또한『術語와 用語로서度量』한다는 非難도 아무리 學者라도 過去의 그汗牛充棟의 書籍을 모도讀破하고나서 一個의課題를 決定하는것이 아니고 往往히 抽象引用된 文句에서 [illegible]結하다는 事實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고잇스며 그것은 조금도 學者와批評家의

羞恥가 아니라는 事實과 따라서 그와가튼 過誤는 누구보다도 李氏自身도 往往히 犯하는 例라고 생각하고 십다

나중으로 나의論이 一定한理想的體系까지 到達되여야 한다는 同氏의 忠告에 對하야는 나역시 어느편으로든지 그體系의 完成을 期하려고 한다는것은 同氏等의 批評과 後援을 더욱히 期待하는 意味에서 附加하려고 한다

現代思惟의 現實的形態 ④

金基錫

人間에게는『生』이란것이 주어젓다。이『生』이란것에 잇서서 歷史니社會이니가構成된다。『生』은그자신한개의運動이다。그러나 그것은 단순한運動 또는移動은 아니다。『生』은 자기와마조서는 世界、또자기가 그속에안기는世界를가진다。그러대 이『生』이란 무엇일가。우리들에게직접주어지는 한개現實인 이『生』이란무엇일가。우리들에게 가장가까우면서 가장머러보이는 한개現實인 이『生』이란무엇일가。

사람들이『生』을 단순한理性으로 생각한일이잇섯다。『生』의 究竟의目標가 觀想에잇다고 생각한일이잇섯다。그러나『生』을 理性에 잇서서 說明할것이아니고 도리혀 理性을『生』에잇서서 理解해야할것이아닐가。『生』에잇어서 理性은 분명히 한개소임을맛는다。그러타고해서『生』이곳理性이아니고 또『生』속에서 理性이 모든일을조리는것이아니다。『生』을떠난 純粹한理性이란것은 한낫抽象的인理性이요 具體的現實的인理性은아니다 理性은 어데까지던지『生』우에서 또『生』속에서 意欲이니 衝動이니하는것과함께 經驗의 潮流속에 휩싸혀흐르는 한개조그만나무닙가튼것에지나지안는다。

『칸트』는 이理性이란것을생각하기에 一生을바첫다。우리들은 이한개高貴한遺産인『칸트』的思惟를 바로傳承하면서 나아가『生』그것을 理解、究明하는 途程에 올려야할것이아닐가。

『生』은어느意味의衝動이다。그것은 안저잇스려는것이아니고、부단히 이러서고 거러보고 달려보고애쓴다。停滯와緩弛。이것은『生』이 가장 실혀하고 두려워하는『生』자신의 頹落및破滅을意味한다。거츤비탈、사나운언덕을넘어 기운차게달리는말。『生』은 말하자면 存在의벌판을 달리는 한머리말이 아닐가。

사람들은『生』을 行爲의世界에잇서서 생각하려고한다。行爲의世界란 엇던것일가。行爲의世界는 運動의世界 生成의世界가되지안허서는 안된다。우리들이 存在란것에대하야 事實이란것을 구별할때、이事實이란 말하자면 存在의運動가튼것이되어야한다。存在를 그속에휩싸고흐르는 한개久遠한潮流가튼것이 되어야한다。

行爲의 世界란 바로 이事實의 世界가아닐가。一切의流動、一切의轉變을 그속에안은채 그자신부단한生成을보이는 한개事實의世界。『生』이본대 運動을意味하는한에서 그것은 어데까지던지 行爲의世界 事實의世界에잇서서 바로도기피 생각되어야한다。『生』을 行爲의世界에잇서서 생각하는것은 人間을 어던 久遠한存在로보는 在來의思惟態度에대한 한개크다란 革命이아닐가。人間뿐아니라、一切存在가 모도 그자신의 久遠한 形相을 지니고 또 지녀야한다고 보는것은 觀念主義乃至 理想主義가 저즈른 巨大한 過誤라고 보여진다。運動과生成。이것이 存在맛그世界의 根本的인 性格、맛그世界運命 또行程이 아니면안된다。

運動의 行程。이속에서『生』은 자기를 建設하고 破壞하고 또 建設하고 또 破壞하고。이러하야『生』은 無常한 轉變속에서 자기를 찻고일흐면서 한개 行爲의 世界를 構成한다。『生』은 어떤 目的을 向하야 자기를 줄곳 發展시키는것은 아니다。『生』은 어떤 使命을 띄고 자기를 줄곳 實現시키는것은 아니다。『生』은 자기를 發展시키면서 때로 頹滅에 굴고 자기를 實現시키다가 도리켜 轉落、喪失에 떠러진다。發展과 頹滅의 永劫回歸運動。이것이 行爲로서의『生』의 진실한 途程이 아닐가。

가을의 前哨

歸田園 四首

无涯 梁柱東

觀稼樓韻

樓在長湍西十里鍮峴、余之別業。

何以名之觀稼樓、主賓一樣歲豐求。多年京洛貪奔走、暇日田園暫逗留。半壁青山窺戶月、四郊黃麥卷簾秋。聞道農村疲弊甚、淳風猶似舊時不。

過舊居有感

廿年前事蛻生風、結構艱辛到此中。爲古爲今皆逆旅、日欣日戚豈英雄。困蹄不是頑饑豆、去矢偶然再返弓。還數生涯都不問、一家勤儉一家豐。

苦雨

霏常風雨曼而滋、何事天公慾此期。亂打佳禾都喪氣、弄殺巨木不成儀。民憂滿載三千里、世劫循環百六時。饑寒耕餒猶難免、如吾受困復奚疑。

颱兮傷兮雲傷滋、樂出吾人所不期。萬里雲山愁底意、十分禾黍病中儀。奈何田社當今夕、又況朱陳非昔時。從此仁天無恃處、空勞心算往然疑。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成果

白頭山에잇는 昆蟲의 分布狀態 ③

金秉河

4. Lycaena amandus amurensis (Staudinger) アムールルリシジミ『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는 이것도 白頭山만 가지고잇는것으로 다만 白頭山을 中心한 西伯利亞에잇슬뿐이다。

5. Lycaena orion (Pallas) チャウザンシジミ『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는 中部朝鮮以北에만 有하고 南部朝鮮과 濟州島 鬱陵島에는업다 中國과 西伯利亞 北海道 樺太에잇고 日本內地本土及 臺灣에는업다。

6. Everes argiades amurensis (Butl.) ツバメシジミ『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서도 濟州島 鬱陵島에는 勿論이고 半島全體에도 골고루分布되어잇다 滿洲 西伯利亞 北海道 樺太에도 分布되엿고 日本內地本土及 台灣 中國에는 類似種이有할뿐이다 白頭山에는 咸鏡南北道 高原地帶와 麓下에 多産이다。

7. Chrysophanus dispar aurata (Leech) テウセンベニシジミ『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는 中部朝鮮以上에만 有하고 南部朝鮮과 濟州島 鬱陵島에는 勿論업다 滿洲와 中國에잇고 日本內地本土 台灣 北海道 樺太 西伯利亞에 全然업다 朝鮮에도 白頭山을 中心한 高原地帶에 多産이라고볼수잇고 中部朝鮮에도 京城附近은 드물게 볼수잇다

8. Thecla eximia (Fixsen) テウセン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우리말로업슴』

朝鮮에도 白頭山을 中心하야 高原地帶에잇고 今나리어와 中部朝鮮에잇슬뿐으로 南部朝鮮과 濟州島 鬱陵島에는업다 滿洲와 樺太에잇슬뿐이고 日本內地本土 台灣 北海道에는업다

此科에屬한것이 朝鮮產만 三十七種假量이다

HESPERIDAE 挵蝶科

1. Heteropterus morpheus (Pallas) テウセンキボシセセリ『우리말로업슴』

濟州島 鬱陵島에만업고 半島全般的으로 分布되어잇다 臺灣、日本內地本土、北海道、樺太、西伯利亞中國에는업다다만滿洲에有할뿐이다。

2. Adopaea leonina (Butler) スヂグロチャバネセセリ『우리말로업슴』

白頭山을 本位로한 高原地帶에잇고 中部朝鮮에도잇다 南部朝鮮 濟州島及鬱陵島에는업고 中國 西伯利亞、日本內地本土 北海道에 分布되여잇스나 臺灣과 樺太에는업다。

3. Augiades sylvanus (Esper) コキマダラセセリ『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도 鬱陵島에만업고 濟州島와 半島全般으로 分布되어잇다 滿洲、中國、西伯利亞、日本內地九州、北海道、樺太에有하고 臺灣에는 類似種이 有할뿐이다。

4. Hesperia malvae (Linnaeus) テウセンヒメチヤマダラセセリ『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서는 白頭山을 中心한 高原地帶에잇고 그리고는 나리어가지고 中部朝鮮、南部朝鮮、에잇고 濟州島 鬱陵島에는업다 白頭山과 連結되어西伯利亞만잇고 滿洲와中國에도 勿論업고 日本內地 臺灣 北海道 樺太에는全然업다。

×

다음으로 藝術的이고 歷史的으로 地理的으로 植物學的으로 高名하신 大家諸氏들의 論文이 揭載되겟기 藻學淺識한나로서 讀者諸氏에게 無味乾燥한글로 떠드러댐을 끈치랴거니와 後日白頭山昆蟲의 蝴蝶外에 여러가지를 部分을 난호어가지고 機會잇슬때 쓰기로한다

다만 끄트로 滿天下讀者께바라서 말하고저 하는것은 이번 두번째 白頭山을 探險할때 그 늣긴바는 말할수업다 七年間에 咸鏡北道의 變遷이라니 무엇보다 急速度로 工場地帶化하엿고 鑛山의 探堀等은 甚히 놀내이게하엿다。現下 咸鏡北道는 科學的發源地요 寶藏地로 되여잇는것이다 工場만안치면 大發展을하고『호미』와『쇠바랑』만들고 發展하기만하면 東洋은 그만두고 世界第一의 名勝을바들 鑛山이라니 거저 지나처 들을 雜談이아니다

朝鮮靑年아 科學을 배우자! 우리는 무엇보다 科學의힘으로 朝鮮의荒蕪地를 開拓하자!그러면 바라건대 科學의智識을 너허주는데는 自由롭게 研究할수잇고 自由로히 學得할수잇는科學館을 建設하여야하겟다。

끄트로 探險을主催한 朝鮮日報社의 發展을 祝福하고 總員諸氏의 愛護를바더 謝意를表하는바이다

訂正

第四回分中 劉達永氏를 柳達永氏로 元炳意氏를 元炳徹氏로 正訂함

九月十二日밤 松都에서

讀者社交室

▲文學에뜻을둔男女同志에게! 文學研究를 目標로한雜誌를 發刊코자同人會를 組織하고 會員을찻사오니 希望者는 尾處로返信料添付申込하라 規則書送付함

清州清水町六十六番地 李靑公

▲京城府內에 朝鮮장、되장、고초장等을 都賣하는곳을 가르처주십시요

府內孝悌町二六九 曹永均

▲八月一日附社交室에 揭載되엿든書籍讓渡하실분에게!여러가지書籍中에서 所用되는것만 分讓하시는지요 分讓하신다면 永遠의生命 無情을 小生이買受코저하오니 此欄으로 貴下의住所를通知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冊價도알으켜주옵소서 平壤P生

▲讀者諸兄 早稻田大學商業講義讓渡하실분이게시면 本欄又는 左記住所로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京元線福溪驛前 徐大三

▲社交欄을通하야말삼하신 書籍中(젊은그들)一部를購讀코자하오니 未安이오나左記住所로通知하야주시면 代金送金하겟나이다

開城府池町二〇六 金麥湖

▲天安郡宇利家具店의게 本欄으로下問하신 書籍은振替東京六六〇五八番一貫堂書店에서販賣하는伊藤重次郎著 商店の管理と經營과 郡山幸男著 廣告印刷物の知識、古本」以上定價各二、〇〇圓 價各一、一〇送料各一〇이옵니다 內容充實도新本과差違가小無하오니 安心購讀하시오 或이나意見을交換코저하실時에는 直接左記로

宜寧邑西洞 晉成堂

▲寫眞 農村에서 從事하든사람이온데 이方面으로 就職을求하나이다 現在도 從事中입니다

小生은 郡廳地에가서 寫眞術을研究할가하는사람입니다 京城市內서 寫眞術을하시는여러분의見習生을 求하시는분이게시거든 小生을 採用해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生은寫眞術을 研究하기위하야 願하는바입니다 社交室로通知해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瑞興 KS生

▲慶北永川一少女氏께 八月六日付社交欄에答합니다 娘娘座는 今番이곳(滿洲國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中央劇場)에서 南鮮水害寄附金募集次上演中이오니 速히通信하십시요 不日間離安할듯하오니 離安後이면 上記劇場이나 又는本人께 直接問議하시면다시아려서 通知하여드리겟슴니다

滿洲國安東縣二番通六丁目二 李承烈

▲地交室을通하야 問議합니다 小生은 英語를배우고저 英語講義錄이나或은 初步에適當한 書籍을求하오니 講義錄發行所나 書店에서 直接通知하야주시면 고맙겟슴니다

黃海道延白郡延安面山陽里二一八 崔元奎

▲讀者諸氏에게 特選童話集 榮潭先生著 小說集 李光洙 金東仁 共著二冊中一冊만을보내주시는분에게 のらくら新兵 價六十五錢 漫畫の實話 價六十五錢 二冊中一冊을希望하시는대로進呈하옵겟습니다

世界童話集、世界笑話集 崔仁化先生著보내주시는분에게 寄謝進呈 但郵便으로通知하시옵

鍾路三丁目一五三ノ二 金相秀

新刊紹介

▲모던朝鮮 創刊號(內容)隨筆十篇 尖端女性座談會 鍾路美人群像 내가조와하는女性의印象記(文人諸氏) 美容秘訣 모던語大辭典 文人寸想記 詩 小說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七三 모던朝鮮社 振替京城一五八四七番 定價廿錢 送料一錢

▲롱친걸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八〇 롱친걸社 定價十五錢

▲常綠樹 沈薰作(內容)變頭悲行進曲 一滴千金、起床喇叭、가을옥의秘密、海棠花필때、第三의故鄉、붉개미와가티、그리운名節바가운손님、새로운出發、離別 異域의하늘 天使의臨終 最後의一人 等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三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圓八〇錢 送料十二錢

紛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 (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 (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입맛을돗아주고 위장을튼튼히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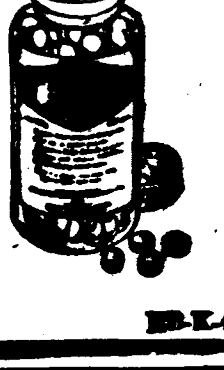
食慾減退 便秘 消化不良 脚氣 乳兒後便 下痢 自家中毒

첫가을에는 더위로인한 몸衰弱을 몸시 깨닷게되나니 慢性胃腸病으로 고통을밧는분이나 허약하신분은 속히 먹은 음식물을 모도 살과 피로가게 만드는 에비오스로 곳치자

(食)(慾) 病床에 누어계신분 또는 몸이 허약하신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쇠약된몸에 영양이되는 음식물을 잘잡수시게하여야되나니 기력이 업게된 위장을 다시금 바로잡어주는 에비오스錠은 사람의게 가장 필요한영양소인「비타민비」의 진국인만큼 몸보양이되고 배원체를 곳처주며 구미를 돗게하야주어서 먹은것을 모도 몸에 붓게만듬으로 잡수신 그날부터 진지를 잘 잡숫게되야 자기힘으로병을 곳처버리게됩니다

(消)(化) 에비오스錠은 위장을 근본적으로 뜨더 곳처주나니 먹은것을 곳 소화식혀주며 보통음식물일지라도 자양분만 몸에 붓게하여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임으로 변동도자연적으로 나오게되고 속이 거북하시든것도 모도 업서지게됩니다 혹이 위장병에 위산이나 소화케 또는 변비약을 잡수시나 이것은 병세를 오히려 중하게하는수가 만코 인이백이니 에비오스錠은 그런법이업시 모든 속병을 근본적으로 곳처주며 몸도 속히 회복됩니다

(榮)(養) 종래의 영양제처를 먹은 분量만 몸에 붓게하는것이 아니라 평시에 잡숫는 음식물을 모도 영양화식혀줌으로 매식후 에비오스錠을 연복하시면 늘 구미가 돗아서 음식을 잘잡수시게되고 몸보양이됩니다



エビオス錠 에비오스정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各種粉末이잇슴
全道藥房에서販賣함

麥酒釀造元 삿보로・아사히・유니온・에비스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馬越藥學博士創製
橋谷農學博士監製

BB-K-43

連載野談

布袋記 (二九)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를케든종각(?) 서동이 어머니가 서동이라는 말을 크게 공연히 생각하여재처 물었으나 서동은 엄는 대답을 아니하얏다.
 서동어머니는 매욱 답답하다는 긔색을 보이며
「아니 무슨 일이기에 어머에게 말하기가 그러케 어려우냐?」
 하며 서동의 대답을 재촉하얏다.
「웅 어머님께 말슴을 아니하려고해서 그런것이 어머님께라도 좀더 생각해 보아서엿주려고 그럽니다.」
 하며 서동은 그어머니를 속이려는 듯이 엇재아니한것을 분명히 말하얏다.
「무슨 일이기에 그러케 생각을 오래도록하란 말이냐?」

「일이 매우 큰 일이니까요.」
「글세 무슨일이나 말을 해보아라!」
「장가를 갈라고요.」
「장가?」
「예!」
「장가 가겟다는 말이 그러케어려워. 아이구 자식두.」
「그럼 장가가는일이 어려운일이지 쉬운일인가요?」
「새악씨는 네마음에 드는 새악씨를 보앗니?」
「보지는 보왓지만 퍽 어려운일 아주 천하 절색 이라나요.」
「뉘집 새악씬데 그러케 잘낫단 말이냐? 아니 그러케 절단 새악씨를 우리와 가리 가란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겟니?」
「아니 가란한 놈은 장가도못들고 어엽븐 겨집도 못가는린단 말슴인가요! 어머니부망령의 말슴을 다하십니다.」
「어데집 새악씨는 뉘집 새악씨냐?」
「신라에잇슴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잇는 새악씨를 네가 어떠케?」
「웅 남의나라 새악씨는 못삼나요?」
「그래 신라 새악씨면 대관절 뉘집 새악씨라니?」
「저 신라임금의 셋재딸 선화공주래요.」

「선화공주?」
「예!」
「어이 미친놈, 네가 어쩌게 선화공주에게 장가를 들어!」
「웨 나는 선화공주에게 장가못들것이 무엇입니까. 첫재내가 백정이 아니요. 또는 내지게가 남의것지 아니요. 다만 가난할뿐. 홍이지요. 그러나 재물이란 잇다가도 업고 업다가도 잇는것. 나는 항상 이러케 가난뱅이로만 살나는 법인가요?」
「그야 그렇지만 안될 말이니 말두 말어라!」
「아니 다 편지가 잇서 생각이 되는데 오직 지게가 남부면 잘안될다기에 어머니께 엿주어 봅입니다. 그런데 내지체가 그만한데 웨 못될일이 잇슴닛가?」

「아서라! 그런말 말어라 되지도 아니할일. 남의 귀에들니면 공연히 말성만 생기기 쉬운일. 더구나 신라임금이그 공주를 딴닙 생중에도 더귀히생각해서 사위감을 여간고르지 안으신다는데 너가튼가란뱅이에게로 시집을 보내시겟니. 아예 그런생각은 말어라!」
 하고 서동의 어머니는 당치아니한 말을하면 밧븟이 해나를아 울것을 말하얏다.
「아이고 어머니두. 사람에게로 시집을 보내지. 가란이란것에 시집을 보내나요. 글세 가란이란것이 그러케 흉될것이뭐야요?」
 하며 서동은 여전히 선화공주에게 장가못들것이 업다는듯이 말하얏다.
「그저 안될일이야. 너보담 더한 어떠 임금의 자손들도모두 퇴짜를 바뎟다는데 너를 무엇을 보고 그공주를 내주겟니?」
 하며 그어머니는 여전히 만류하얏다.
「예, 두고 보세요 내가 그선화공주를 데려고 오나 못오나 두고 보세요!」
 하고 서동은 선화공주와 혼인하기 위하야 신라에 갈것을 결심하얏다.
「큰일낫다. 큰일낫서. 네가 신라따에가서 그따위말을하고 다니다가는 잘못하면 장의어이」
 하고 그어머니는 크게 걱정을하며 서동이가 선화로 가겟다는 것을 못가게 말하얏다.
「어머니 걱정마세요.」
 하고 서동은 매를 단히 졀러지고 귀어코 선화를 향하야 떠낫다.

唱劇史上의 新機軸

歌劇 "春香傳" 大公演

보라 適材 適役의 名唱들!

指揮 李東白
演出 宋萬甲
　　 丁貞烈
脚色 金春承

—□配役□—

新官使道 金昌龍	房子 吳太石	使令 金世俊
李道令 丁南希	香丹 金任壽	使令 曺南承
春香 朴綠珠	雲峰 李東白	羅卒 趙相鮮
春香母 林小香	任實 丁貞烈	羅卒 柳大福
	谷城 宋萬甲	通引 都點伊
	獄使丁 沈相健	執杖使令 姜太弘
	級唱 徐鴻九	行首妓 曺鵬鵡
	執事 丁元燮	妓生 李桂仙
	首刑吏 韓成俊	成春香 李玉花

時日 九月下旬·場所 追後發表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라디오

十七日 (木曜)

◇午後六時 童謠 京城少年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市況
◇同七時三〇分 長篇講談 「가옥에 우는비련」 (二)
 第二放送 金 ……
◇同八時 ……
◇同八時二五分 하-모니카 ……
◇同八時四〇分 ……
 배뱅이굿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
◇同六時二五分 小田原放送 ……
◇同七時三〇分 講演 ……
◇同八時 (東)淸元
 淸元巴紫太夫外
◇同八時二五分 (東)하무로니오
◇同八時四〇分 (大)……
◇同九時 (東)落語 ……
◇同七時三〇分 長篇講談 (三)
 第二放送 金 ……
◇同八時 (大) 獨唱과齊唱
 —……—
 一、……
 ……
 ……
 二、…… 가、……
 ……
 ……作曲 나、……
 ……
◇同八時一五分 獨唱
 ……
 一、…… 아서라쯤上……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시냇가」一景 —配役— 아버지
 ……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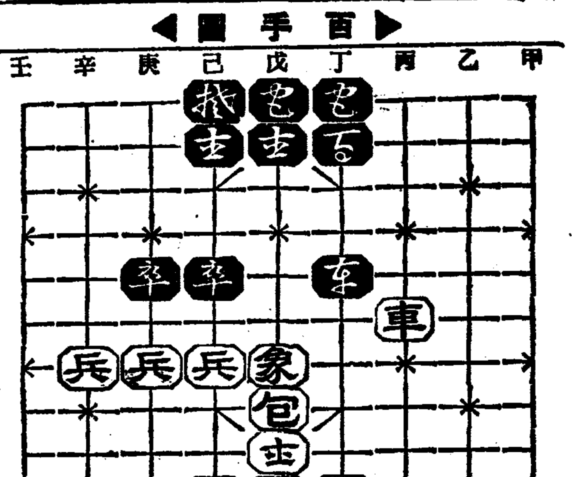
十八日 (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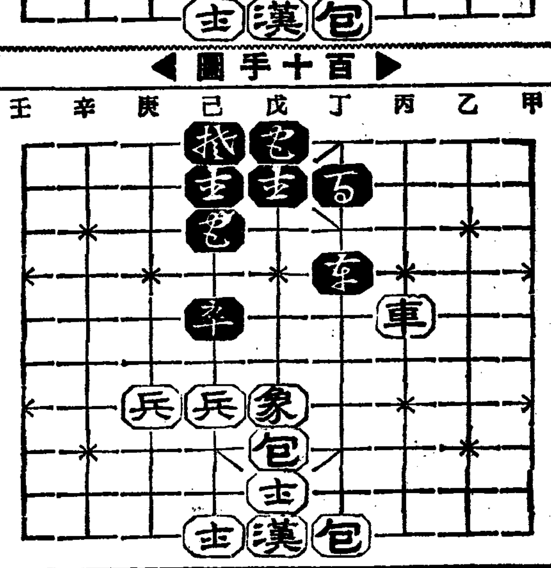
◇午後零時五分 물레방아
 一、물레방아 二、오골독 三、청춘가 四、오골산 五、 춘강산타령
 田紅桃
 金明洙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無盆한浪費를節約합시다"
 梨花女高 朱壽元
◇同六時 連續兒童劇 (一)
「행낭아이」 二景
【配役】
順子(主人)……權舜亨
玉順(그의동무)……崔英淑
慶伊(同)……朴永燮
聖玉(행낭아이)……朴永熙
泰植(聖玉의오빠)……金小泉
順子의아버지……金喜童
聖玉의아버지……張弘釵
金서방(일군)……姜仁奎
京城어린이放送會

◇午後零時五分 浪花節
◇同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午前六時三〇分 (東)英語會話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浪花節
◇同二時 婦人時間 朱壽元
◇同六時 (東)合唱과管絃樂
 JOAK唱歌隊
◇同六時二五分 (滿洲)講演 (新京서부터)
 植田……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寺內壽一
◇同八時 (東)獨唱과齊唱 獨唱
 水野康孝 合唱·大阪放送合唱團
◇同八時一五分 (東)
◇同八時二五分 (大)義太夫
 文 ……
◇同九時 (東)落語 金原亭馬生

十九日 (土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倂唱 一
 短歌 大丈夫 二、唱歌調 沈
 清歌 朴秋月
 鼓手 池龍九
◇同六時 連續兒童劇(二)「행낭아이」二景
—配役—
順子(主人)……權舜亨
玉順(그의동무)……崔英淑
慶伊(同)……朴永燮
聖玉(행낭아이)……朴永熙
泰植(聖玉의오빠)……金小泉
順子의아버지……金喜童
聖玉의아버지……張弘釵
金서방(일군)……姜仁奎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十分 週間時事
 朝鮮日報 咸尙勳
◇同七時三〇分 講演「新聞의社會性」 每日申報 柳光烈
◇同八〇〇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번조난봉가、개성난봉가
 金順紅 金振鳴
◇同八三〇 野談 丈夫心境 庚秋岡
◇同九〇〇 獨唱 一、嘆息의노래…토젤리作曲 二、도라오라 소렌토로…쿠르티스作曲 三、西班牙小夜曲…비제-作曲 四、미의노래…푸치니作曲 五、歌劇 마담버터플라이 노래中에서 어느개인날…푸치니作曲
 피아노伴奏 文 ……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東) ……
 白井 竹堂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新日本音樂
◇同七時五〇分 ……
 久本支部社
◇同八時二〇分 (大) 物語
 坂東……
◇同九時 時事解說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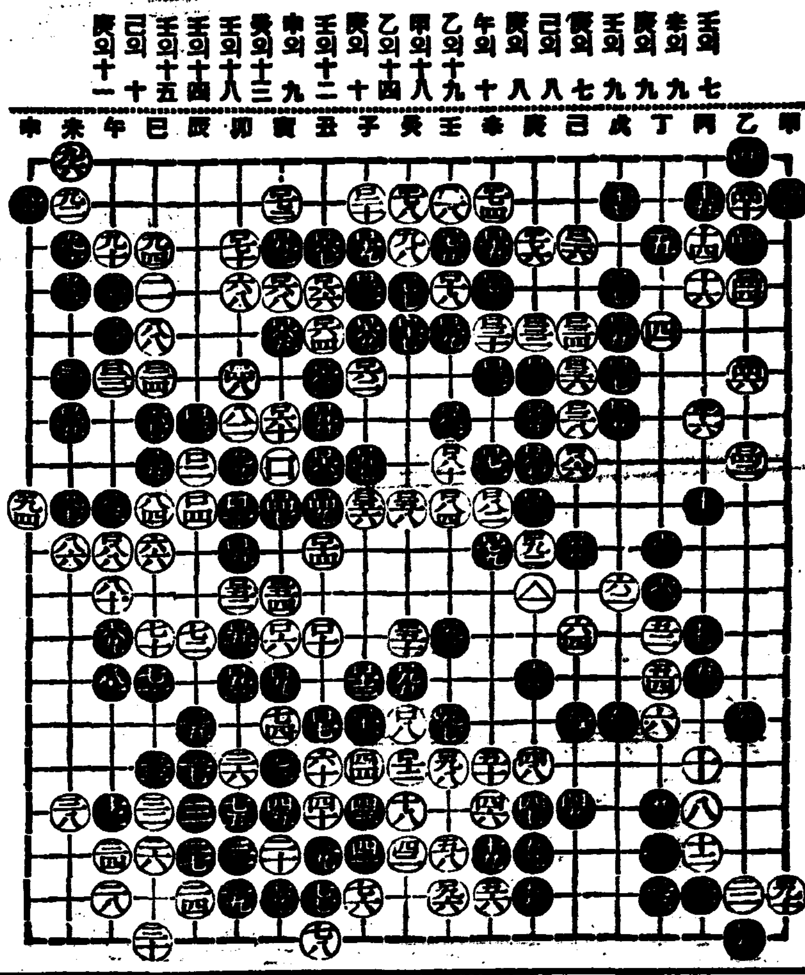
甲先手 金于石 對 李在鳳

己五卒一戊五
己二兵一己一
戊五卒一己五
丁一車一丙三

辛五兵一庚五
丁五車一丁二
己三兵一己五打卒
庚五車一己五打兵
丙三車一丙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先 柳鎭河
白 尹周鏞



觀棋文氏評曰 白이 中央을 連絡하면 安峙之日이 不遠이어늘 中의 九的間은 美策이나 不必要로 緩敗하노라

●七一 壬의 七
○七二 辛의 九
●七三 庚의 九
○七四 壬의 九
●七五 寅의 七
○七六 己의 八
●七七 庚의 八
○七八 午의 十
●七九 乙의 十九
○八〇 甲의 十八
●八一 乙의 十四
○八二 庚의 十
●八三 壬의 十二
○八四 申의 九
●八五 癸의 十三
○八六 壬의 十八
●八七 壬의 十四
○八八 壬의 十五
●八九 己의 十
○九〇 庚의 十一

味の素 (아지노모도)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朝鮮料理調理法」 定價五錢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朝鮮事務所

9—本

品賣發田武

겨드랑내와 땀防止에

ダモラ (라 모 다)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オイン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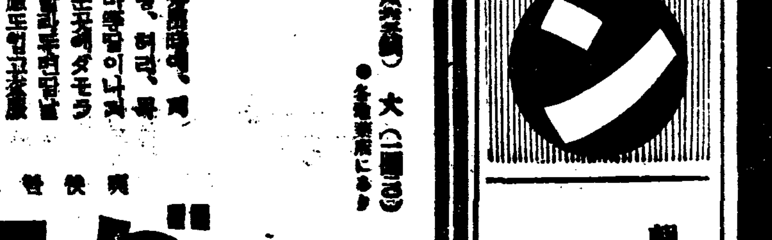
36—117

카루피쓰 …… 冷暑不定 健康不安 カルピス一杯 置君於泰山之安

◆富士十四日第一回封切◆次週十八日より◆阪東九州男主演 幽靈一座
▲ハヤブサ·ヒデト主演 無敵鳳翩王 第二篇
▲コロムビア日本版 社長は奧樣が好き
浪曲トーキー 小松嵐
ロイドの鳳翩王 ハロルド·ロイド主演
永樂町 中央館 電本二三一番

◇九月十六日부터三日間! 東劇座公演 第三週
◇金曜……作 悲劇 光明을찾는사람들
◇金曜……作 時代劇 紅娘과白夢 全一幕
 奇怪劇 怪人마부세博士
 豪華版 도도
 朝鮮話全發聲 浪花紅蓮傳
 觀賞 浪花館

九月十六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毎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冒險活劇篇 邪神島
 레이몬드하론氏 共演
 스텔프이쥬-嬢
 레지스도미氏 ……監督
松竹大船特作小唄映畫 新鋭宋本英男氏監督
流行音樂映畫 下田夜曲
 ……
鍾路五丁目 電光二一三番 第一劇場



九月十六日より九月二十二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まぼろしの十手 11、30 3、45 6、50
囃初戀 2、07
變 鏡 12、35 4、50 9、30
第一回目の『囃初戀』は上映致しません
……入場料金 40錢 60錢……
浪花館

◇卅世紀폭스特作映畫 九月十四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人情私情불저업다
 퐁스케빚、로젤하드손 시시로메로、하이마主演
귀여운오데이
◇卅世紀폭스特作映畫
 天才 쩨위서스少女主演
◆新興키네마超特作 初戀日記
 原作 脚色 如月敏
 監督 田中重雄
 伏見直子、松平晃 主演
 ——(次週十九日封切)——
 幽靈은西便으로、靑春의바다 (公明(?))라다-코、大空의寵異、當り屋カンタ、無法地獄、마즈루카、國際間諜團、生活의道、近代脫線處女
 團成社

九月十七日부터特別大公開!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상호도氏大作品!
오페라는춤춘다
 마르구스三兄弟主演
 ……
 아리랑第三篇
 優美館 電光二九五

九月十二日부터 晝夜二回上演
 靑春頌歌 三幕四場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一三

咸南道土木工事費 六百萬圓의巨額
其中道路豫算만四百餘萬圓
豫算額容認이注目處

【咸興】 함남도에서는 그밤 전괴함께 저반도로공사의 급을 요하는것이 극히 만흠으로 래년도부터 륙개년계속사업으로 도로개량(道路改良) 하천항만(河川港灣) 시가지 개량공사등을 륙백만원의예산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야 오는 이십사오량일간에 열릴 도지사회의에 제안하기로 되엿는데그중도로 개량공사만은 사백삼십오만원이라고하며 과연 어느정도의 예산이용인될는지가 크게 주목된다 이제계획중의 일이삼등도로의 공사비는 다음과갓다

一等道路	
▲元山會寧線	一二二三、五〇〇圓
二等道路	
▲新安州咸興	一八、一〇〇圓
長州惠山	一六八、六〇〇
咸興慈城	八八、九〇〇
咸興西湖	五一一、六〇〇
元山楚山	四三一、〇〇〇
北靑甲山	一九、〇〇〇
三等道路	
城津惠山	三五、〇〇〇
洪原西湖	一二三、〇〇〇
洪原中江	一〇五、〇〇〇
端川甲山	一六三、〇〇〇
咸南大同	三一一、二〇〇
惠山新乫坡	三二〇、〇〇〇
上里秋楸里	三一、七〇〇
仲坪場惠山	三九、六〇〇
端川豐山	七三、〇〇〇
事務費	三九〇、〇〇〇
合計	四三五〇、〇〇〇

死線에선三千漁民
죽은家族생각은過去事이고 殘命의救急이目前의要務
彌助漁民의災後慘狀

【南海】 지난달 이십팔일폭풍우로서 인구비례로보아 전조선 무류의 풍파를 당하얏다는미조항 어민들은 잔명이 근근구조되야 부모형제 자식의 죽은 서름은 발서지난일이오 어장漁具어선업는 어민에게는 날이갈수록 기사가 위협할뿐인데 하로바삐 당국과 동포의구조를 요망한다하며 사백호 삼천주민의 미조(彌助)어항의 참상한 조사는 다음과갓다한다

▲死亡二十四人 行方不明十四人 漁船流失八隻 同全破八十二隻 同大破七十二隻 同小破八隻外 地人船全破九隻 漁具六十七件 發動船全破五隻 帆船全破三隻 家屋全半潰流失 四百戶 額面計十二萬五千八百六十圓

順川地方에는 牛疫거의終熄

【舍人】 요사이 각지의 우역이 돌고잇슴은 본보에기보된바이어니와 평남、순천지방에서도 약웝여전부터축우의 감기가 돌기시작을하야 입시는 그병우의총수가 천여두에 달하기까지 햇슬뿐아니라 페사우까지 생기엿슴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말할수업는 공포에싸히엿스며 군、면 당국에서는 그방역대책에 크게 부심중이엿다는데 그후 경과는 아조조와서 거이전부가 이러나고 겨우 몇마리에 불과한터임으로 수심에싸엿든 일반은 마음을 노케되엿다는바 아직도 전군 도처에 게속만연중에 잇스나 머지안허 모다 전쾌되리라고순천군 축산계에서는 일반농민들에게 알리엿다한다

藝術寫眞展覽

【牙山】 온양온천신정관(溫陽溫泉神井館)주최와 본보아산지국후원으로 예술사진전람회(藝術寫眞展覽會)를지난십오일부터 오는삼십일까지 동신정관내에서 개최중인바 사해제현은 다수관람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秋季音樂大會
本報鎭南浦支局後援 十九日夜公會堂서

【鎭南浦】 진남포신흥리감리교회(監理敎會)엡웟청년회에서는 오는십구일 오후팔시부터 추긔음악대회(音樂大會)를 본보진남포지국후원아래 진남포공회당(公會堂)에서 개최한다는바 이는사계에서 상당한수련이잇는남녀삼십여명이 총동원할것임으로 벌서부터 대성황을예긔한다 특히 금번음악회에서 엇는순리익은수재동포를위하야 쓰기로되엿다고 함으로 각방면인사들은 다수래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女性同友會에서 救濟事業着手

【鎭南浦】 진남포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에서는 지난십일오후 평안의원(平安醫院)에서 제이회 정긔총회(定期總會)를 개최하고 규정에 의하야 임원을 아래와가티 개선하고 수재동포 구제방침에 드러가 토의한결과 위선회원 일동이 일원이상에 해당금품을 모으는후 오는이십일오후두시부터는 오십여명회원이 총동원하야 시내 각방면을 방문하면서 금품을대대적으로 모집하리라는바 다수찬동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改選委員 會長 崔○○ 副會長 李惠秀 總務 姜奇鄕 書記 崔茂德 洪善昌 會計 盧聖恩 金玉璉 學藝部長 朴玉鄕 保健部長 裴奇鄕 社交部長 裴仁洙 鄭鳳 部長 李信德

滿身瘡痍된加水面
死亡十一名、家屋流失百三十戶
農作被害만十五萬圓

【居昌】 지난번 폭풍우에 거창군하의 가북면(加北面)일대는 동리마다 산이 문허지고 전고미문의 일대참상이 잇섯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특히 사망 십일명을 내엿고 가옥유실된것만 일백사십여호에달하며 경작지의 피해액으로만 실로십오만여원이란 막대한 피해를 당하야 어찌할바를 아지못하고 잇다는 처참한상태로 참어보지 못할 처지에잇다한다

偉大한同族愛! 救濟品逐日遝至
衣類一千六百餘點 現金四百數十圓
宣川郡民總動의赤誠

【宣川】 련하야 두번식이나 폭우가 습래한 괴변으로 백만의 이재민을 내이고 일억을 돌파하는 엄청난 손실을시긴 끔직한 재란의 이참경! 우리동포로서 엇지 피끌는 동정이 업스랴! 본보선천지국에서는 때를 억기지안코 곳 참된 동정을 구하야 죽은자는 죽엇스되 겨우 사경은 피하엿스나 주림에 허더이고 치움에떠는 백만을 헤이는 이재민의비절참절한 이현편!금품 모집에 착수하려 하엿스나 당시선천경찰서에서의 금지로부터이 중지하고 초조한 가운대에서 정국의세를 취하여 오든바 지난십일일 십이일 양일간 선천 읍(邑)군(郡)서(署)각 신문지국 협력으로 모집원을사대(四隊)에 분하야 구루마를끌고 시내로 호별방문하여가면서 동정금품을 모집하엿는데 다못 한벌옷! 한줌의 쌀이나마 참경에 우는 동포를 위하야 기다리고 잇든것처럼 반가히 던저주는 광경은 실로 대원을 감격케 하엿스며 지극한 동족애의발로로 오직한벌옷인 입엇든 옷을 벗어주며 재지의 어린자녀들을 생각하야 자긔 아들딸의 입은 옷을 벗겨주는등 모집원을 울니게 한일도한두가지가 아니다 모집된 금품은 즉일로 발송하엿는바 모집된 금품은 아래와갓다

現金 四百三十二圓六十錢
衣類 一千六百十六點
雜品 一百九十二點
穀物 十六斗

無産兒敎育機關 雄一學院生赤誠 七圓餘를寄托

【雄基】 삼사회에공한 풍수해로 말미아마 곡창인삼남지방은 페허가되다십히되야 허지에나안즌 수십만 생령은 긔아에 울고잇다는 처참한비보는 매일지상을 통하야 보는바어니와 먹을것업고 이불것업는 그네들을 구제하기위하야 방방 곡곡에서 적성이모혀지는이때에 웅긔에도인

災民의慘景듯고 衣類와菓子를 本社支局에寄托

【元山】 비참극한 재지에서 리재동포들이 긔한에 울고잇는형편을 신문지로보고 뜨거운동정을 마지안는 원산일반인사는 매일 동정구제품을 가지고 본보원산지국에 래방하여 재지로보내여달라고 의탁한다 함은 수시보도하는바어니와 지난칠일에도 원산남촌동일백사십일번지(南村洞一四一) 대판옥(大阪屋)과자

그의아들 조병국(趙炳國)군으로 하여금 본보원산지국에 의탁하엿든 바이엇다

穀倉의全南을蹂躪한……(三)
甚哉!暴風雨의作戲
裸體로死線에선災民을차저서
災地巡訪
光州支局 崔仁植手記

전긔와가티 태풍우가 반도에 (습래할시에) 최초의 상륙지대입으로 다도해(多島海) 일대의 피해는 경상도 남해(南海)에 비할수업슬만치 피해의정도는 참담하얏다 더욱히 다도해의 피해가 만타는것은 어떤어장이고 그럿켓지만 다도해 각어장은 흑산도(黑山島)어장을 위시로 저들이 성어긔임으로 밤과 나즐 모르고 자긔생명을 바다에 맥기어민들은 그날그날을 어구(漁具)와가티 싸워오든 그들에게 긔구한 운명의 장난이라할가 돌연(습래한 폭풍우로 인하야 어민들의 생명선인 어선은 여지업시 침몰 류실 도괴등으로 참담의극에 달하고 잇다는바 그중에는 이미 어장에 출어하야 작업중 조난하야 일가의 생계를 마타 버러먹이든 가장이집에다가 사랑하는 처자를 두고 다시 도라오지못할 수중의고혼이 되고만것이 한어장에서도 일이인으로 헤아릴수 업다한다

×

그와가튼 참해를 면하려고남해안의 다도해 각항구(港口)와 포구(浦口)에는 연일 내리는비와 바람을피하야 모아잇든 각어선은 파손된것도만커니와 바다에 가까히잇는집은 송도리채날려가 버리고 거문도등촌(巨文島村)가튼곳은폐촌(廢村)이 되고만곳이 잇스며 어찌나 폭풍이습래하얏든지 농도각지에는 농작은말할 여지도업고 산과 들에는 락뢰(落雷)가 되것가티 잡초조차사라잇는곳이 업게되엿다한다 그리하야 구월 십일현재에판명된 피해의어선을보면 침몰된것이 이백삼십오척이며 유실된것이 이척 전괴어선일천오백삼십팔척 반괴어선일천사백칠십일척 행방불명이 오천등으로그 빈약한 어민들의입은 손해액만 이 삼십팔만 이백팔십팔원의거액에 달한다하니 그네들의 참상을믿지안는다라도 알것이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별세계로 되야잇는 제주도(濟州島)의 피해는 그간교통의 두절과 통신불통등으로 자세한 조사표를보지못하얏섯는대 제주도의 피해는 전도를통하야 피해가제일극심하다는바 그피해액이 백수십만원이라한다 이와가튼 정경에 처하야잇스니 당장에닥처오는것은 호구지책일것이다 륙지에서로동하야 버러먹든사람들과그들어민들은 죽어도 바다라한다! 사려도 바다라한다。 그러나 바다로나가 활동할 어구(漁具)가 업스며 또한 어선(漁船)이업스니 어찌 일용품만 가지고 바다에나가 작업을 할것인가? 작업을 못하니 먹을것이 생기지안할것은 정한리치이다 그러나 긔근에 빠진 그네들에게 누구가 동정할사람이 잇스료? 잇다면 이나라사는 동포들의 따뜻한 눈물어린 동정이 아닐가 하노니 너나할것업시 어서속히 그들에게 한술의 밥과 한벌의 의복을 보낼것이며 당국으로서도 이미 구제책을 강구하고잇스니 떼밀할것도업것스나 이와가튼 대재화는 례변에 볼수업는것이니 금후로도 수륙을 만한것이다 구제책에 잇서서도 례변에 보든 구제와 달리 임보를 직히야 명신통히 구제책을확립하기를 바라는바이다。(끗)

彌助漁民의災後慘狀

와 평남、순천지방에서도

醉中의同僚를 雨傘대로刺殺

【兼二浦】 술을먹고 사소한언쟁끗헤 우산대로 동료의눈을 찔너죽인일이잇다 겸이포읍욱정백번지(兼二浦邑旭町百番地) 강연악(姜連岳)(三〇)은 동소에사는 정주찬(鄭周燦)(二二)과 오류리(五柳里)리병련(李炳連)이와 지난십오일전열한시경에 주점에서 술을먹고 나오다가 피해자강연악(姜連岳)이가 가해자정주찬(鄭周燦)이에게 금이십원맛겨두엇든것을 청구한것을지불치안음으로 서로언쟁끗헤 정주찬이가 들엇든우산으로 강연악의 눈을 찔너 십이일오후구시경에 사망하엿스며 가해자는즉시경찰서에 체포하엿다한다

鐵山郡下에도 牛疫이大猖獗

【鐵山】 평안북도 철산군하에는 전에업는 축우류행성감모(畜牛流行性感冒)가 대창궐되며 일반농민에게 추수긔인이즘에 큰공포를주고잇다는데 방금정확한조사는할수업스나 감염된소(牛)가부지기수라는데 매일철산읍군농회축산계에와서 왕진지여가는것이 수십여두에달한다하며 우마통행까지 두절되여 일반은 크게우려중이라한다

西湖津方面에 變死者가續出

【西湖津】 함남서호진은 불과일주일내에 네사람이 그물죽음의 이잇다 지난삼일 흥남조질공장(朝窒工場)에 근무하는 일본내지인모와 함흥부내에기(사나이)(二〇)와 두사람사이는 남모르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녀자의 채금칠백여원을 갑흘도리가업서서 할수업시 영생의길을찻고저 서호진여부근해에서 남해연시명자에 뛰여들어 남자는 그즉시 죽고 녀자는 결과이 되여 병원에 입원하엿다가 며칠전에 사거하엿는데 다음은 함남서호진에잇는 저에망발동선(…)부구환(富久丸)에서 지난오일 고기잡으러 바다에 갓다가선원야송(野村)(二一)은발동선작업에경험이적음에도불구하고 「로-라」에를 올랏다가 되감기어서 그즉석에서 죽엇다한다 또하나는 지난팔일에 서호면흥상리(興上里)에 거주하는 한태영(韓泰泳)은 서호진 굴부근에서 지나가는열차에 뛰여들어 자살하엿다는데 그원인은 아직미상하다고한다

明年度土木費割當 二百六十餘萬圓

【平壤】 평양부토목공사비할당(割當)은 보통강개수비 백만원 국경도로비 백만원 대동강개수비 오십만원 대동강하류 개수비 이십만원으로 이것은 당연히 실행될것으로 총액은이백륙십만원에 달할터이다 그런데 금번도에는 대동강개수륙십만원 국경도로 사십만원 보통강개수 오십만원 대령강공사팔만원 기타 재해비 삼만원 합계 백사십구만원이므로 명년도예산이 예정대로 통과하면 금년도보다 백만원이 증가되여 따라서 인원도 다수를 요하게되는 호경긔를 보힐터이라한다

劉蘭淳三男妹의 奇特한救族熱

【南原】 남원군내 사매공보교에 재학중인 류란순 첨순 계순(劉蘭淳、𦻙淳、桂淳)삼남매는 지난번수해의 참상을 보고도라와서 평소에한푼두푼식 모아두엇든 저금통장을 모조리차저 한개일원식전신천을 지난구일 본보남원지국으로보내면서 그들상한 동포들을 다소라도 구조하야달라는 눈물겨운 가륵한편지가잇섯다

三南水害關係로 普通江改修費犧牲
附近地價急激低落

【平壤】 평양의 서부평야를 관류하고잇는 보통강을 개수하여 평양서편에 큰선창을 만드는동시에 토지난으로 허덕이는 평양에 사백오십오만평의 광대한 주택지대와 공장지대를 건설하려든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부의 다년간의 현안이엇든 만큼 총독부토목과에서도 그필요를인정하여 사백오십만원으로 명년도부터 사개년계속사업으로 개수공사에 착수키로 결정하고 예산에까지 계상하여 진남포수도개수공사와가티 실현을 확신햇섯스나 삼남수해때문에 총독부재무국에서는이예산을 삭제하게쯤까지전도가위험시되게되엿다 이때문에 고등해가고잇든 일대의 토지가는 돌연히 저락을 시작하엿다한다

衣類五百餘點募集

정미당어잇다―그는 그날그날로 동해서 생활하는 로동자의손으로 경영하는동지의울내 호협회원(兼一里院)생도들은 동포애의발로로 헐벗고굶주리는 이재동포들에게 만분의일이라도 도움이 되여지라고 구차한생활에 한푼두푼식 모흔적성의 동정을 회원 취지구절을 재지동포에게 전달헤달라고 본보봉지국에 긔탁하엿다고한다

島中災民에傳達
本社金海支局에寄託

【金海】 한번도아니고 두세번이나 가진풍수해를 겪고 생지옥에서 신음하고잇는 이재동포의 참상에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는 김해녀자청년회원들이 총동원하야 호우를 무릅써가면서 집집마다방문하야 모은의복오백칠십륙점을 흑은머리에이고 흑은억개에메고서 동회회장 림순이(林順伊)외오인이 지난십일일 본보김해지국에와서 긔탁하면서 김해군내에서도 풍수해에 의식주를일코도 구제의손이밋치지 못하는 제일교통을변지인 군내명지면(鳴旨面)이재민에게 전달하여달라고한바 일반은 그들의 아름다운 정성에 매우칭송이만타한다

職工保健에喜消息 工場體操를實施
平壤“體研”의周旋으로

【平壤】 평양부내의 대소팔지개처공장의 직공건강상태를 최근조사한바에 의하면 폐결핵(肺結核) 기타의 환자가 사할이상을 점령하고잇서 건강평양을목표로 위협하고잇는 한심한상태로 보히어 우리의큰사실이되여 잇거니와 평양 체육연구소(體育研究所)에서는 공장직공들의 건강향상내지 보건을 위하여 공장체조(工場體操)를 실시코저 그동안 공장관계자들과 협의중이든바 절대의 찬의를 어더 이십일경부터 동연구소사범안옥식(安鈺植)김군긔(金君基)박영철(朴永喆)전교수(全敎秀)등씨의 지도로 실시하게되엿는데 참가공장은 다음과가트며 부내 전공장이 다가티참가하기를 희망하는터이라한다

◇參加工場
▲三共洋襪工場 ▲月星洋襪工場 ▲世昌洋襪工場 ▲大同洋襪工場 ▲第一洋襪工場 ▲西鮮洋襪工場 ▲海東洋襪工場 以上七個處

學年延長運動

【海州】 사변제를 륙변제로 연장하여달라는 교육향해의 명랑한소식――연백군 해월면(延白郡海月面)에잇는 창곡학교(彰谷學校)는 그동안 수백의 졸업생을 내엿슬뿐아니라 현재에도 날로 늘어가 그지방의 오직 하나인부산아동의 교육긔관인바 동교교장 김긔선(金基善)씨는 내용을 일층 충실히 하기위하야 지난 십오일 황해도당국을 방문하고 현재의 사학년제를 륙학년제로 연장케하여달라고 진정하엿다

安息敎會에서도 同情金品寄託

【元山】 원산에잇는 제칠일안식일야소교회에서는 금번수해리재동포에게 보내달라고 의복삼십사점과 현금삼원을 거두어가지고 본사원산지국에 의뢰하야왓다

權炳璇氏五十圓 其他衣類遝至!

【咸興】 함주군주북면(州北面)권병선(權炳璇)씨는 일금오십원을 남조선수해구제금으로 신사업본보함흥지국에 긔탁하야왓스며부내보정이정목리성규(李成圭)씨는 의류팔점 성천정사정목(城川町四丁目)리면한(李冕漢)씨는 의류네점을 긔탁하야왓다

洪水에물건느다가 一家族三人俱歿
益山川上流에서의慘事

【參禮】 지난삼일에도 역시홍수로 중수되야 익산군춘포면 익산천(益山郡春浦面益山川)에는 교량이 범람되엿는데 마침동면 장정리박노철(同面長亭里朴魯哲)은 그부인과금년두살먹이 어린이를 대리고 그물을건느든중그부인이 실족하야 어린아이를업은채 홍수에휩슬려 흘러가는참상을보고 구호하자는 목적이든지 자긔도 역시그물에 뛰여들어가서 일가족삼인이 무참히도 일시에빠저죽엇슴으로 이부근동청년단이 총동원하야 사체수사에 노력중이라고한다

中等校蹴球大會 벌서參加九校

【平壤】 축구도시 평양의 가을을 장식할 평양의전체육부(平醫專體育部)주최와 본보평양지국후원으로 이십삼、사량일간 평양의전구장에서 개최될 제륙회 서조선중등학교축구대회(第六回西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는 벌서

▲平壤商業▲光成高普▲朱乙商業▲崇實學校▲平壤農業▲鎭南浦商工▲安州農業▲新義州商業▲學校▲沙里院農業

등 구개교가 참가하여 백여명의 열렬한선수들이 모교의 명예를 위하야 용양호박의 장쾌한 경긔를 진행할것이어서 인기는 비상히 고조되고잇다한다

光州
全朝鮮男女 自轉車競技大會
◇時日 十月四日(第一日曜)
◇場所 光州公設運動場
◇主催 朝鮮日報社光州支局
◇後援 光州輪業組合

愛慾의彼岸 【103】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자、어서、그만둘어요。그리고 말을 하라니까」

하고 김장로는 문임을 손을 잡아 몰려안쳣다。

「그럼 제말슴대로 하실레야요!」

하고 문임은 몸 떼가 될것으로 보햇다。

「암、허구말구。」

「그럼 허련이허구 은주씨허구 혼인을 시켜주세요。그러케 하실레야요?」

김장로는 눈을 감는다。

「거 보세요。무업 내 말대로 다 해 주엔다고」

문임은 얼굴 빼쭉한다。

「그럼거로 혼인이야 어떠케 그러케――대관절 허련이도 어련애가 아니바게 제 마음도 잇슬테지――안 그래?」

김장로는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을 한다。

「그럼、허련이만 조타면 허락하실레야요?」

하고 문임은 이 긔회를 놋치지 아니하고 언질을 바드려든다。

「제가 원한다면 할수업지」

김장로는 제 뜻에는 맛지아니하나、이 경우에 입 이러케 대답할수밧게 업슴을 느낀다。

「허련이가 은주씨를 사랑해요」

하고 문임은 힘을 어더서 단언한다。그것은 금방 허련의입에서 들은 말이 잇기때문이엇다。

「무어? 허련이가 은주를?」

하고 김장로는 놀란다。

「그럼요。아까도 식전에 말슴야요。제가 허련이 차즈러 안나갓서요?허련이가 고개를 푹숙우리고 무슨 생각을 기피하고 잇는 모양이길래、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엇더니 은주씨 생각을 하노라고 그래요。」

「아니。은주가 청하는것을 거절햇다면서?」

「글세 그랫는데요。그것을 대단히 후회하는 모양 가태요。은주씨 말을 그러케 거절해버린것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는 모양 가타요。분명그럿습니다。두고 생각해보세요。어듸그만한 남자가 잇서요?」

은주를 칭찬하는 소리에 또 김장로는 불쾌한드시 양미간을 찡기고 외면한다。문임은 그눈치를 알고 김장로 눈에 안띄우리만큼 웃섯다。

그리고 문임은 말을 이어서、

「그런데요。허련이가 은주씨를 사랑하는게 왜 확실한고 하니、또 하나 징거가 잇단말슴이야요 저어、저어、」

하고 문임은 약간 가슴이 설레는것과 낫치 호문거리는것을 느끼며 잠깐 주저하다가、

「저어、임준상씨 아시지요?그 대학생」

하고 김장로의 눈치를 본다。

「응 엇지。그래?」

하고 김장로는 무슨 말이 나오나 하는 호긔심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문임의 얼굴을 바라본다。

「임준상씨가 여간 허련이헌테 마음이 잇는게 아니란 말슴야요。언제든지 꼭 따라다니지요。이번에도 따라오지안햇서요。송도원서 동무들하고 캠핑하고 잇다가 동무들도 다 버리고 따라오지안햇서요? 그런데 오늘 식전에도 은정리서 여긔까지 왓단 말슴야요――허련이를 보려。」

「준상이가?식전에?」

「네에。저리로 철철 가는것을 보앗는데、허련이말이 만낫노라고요」

「그럼 허련이가 새벽마다 산보 나가는것이 준상이를 만나려 나가는것이야?」

하고 김장로의 어성은 좀 노파진다。아버지로의 분개를 느낀것이다。

「아니!말슴을 들으서요。그런게 아니라 허련이가 새벽 산보를 나가는 습관이 잇는것을 알고 준상씨가 따라다니는게야요。그런데도 허련은준상씨 생각은 아니하는 모양이야요。예전에는 혹시나 그러치나아니한가 햇는데、오늘 아침 보니깐 딴판이거든요。허련이 말이、준상씨 보고 똑 끈허서 말을햇노라고요。」

「사랑할수업노라고?」

「네에」

「옹、그래서 준상이가 그러케 우러를 따라다녓다?내응한 여석 가트니」

하고 김장로는 괘씸한드시 입을 우물거린다。

못보시면大損!
日本서처음생기는 中學講義錄의特賣 絶對로他에比할수업는
全學期十二卷 合計定價十二圓을
단지 三圓에大投賣
●일어나오라! 獨學靑少年이여
只今까지一個年卒業에十圓餘의會費를要하든 中學講義錄을單只三圓에 全學期全卷을全部送本함、短期間에自由롭게中學卒業의 學力을어들수잇는中學會는日本서오직本會하나뿐、이犧牲的大壯擧에、全國中學講義界의人氣는本會에集中、申込殺到、後援激勵의書面祝狀이續續山積하는大盛況、申込은一日이라도速한것이有利、只今곳、特賣期間中에申込하시라。
全十二卷五千餘頁
破天荒的安價內容完全無比
最新式講義로가장平易한
文部省中學令에準據한全課目網羅
入會의最好機 只今곳入會하라 十圓以上價値잇는最新式講義錄을三圓에
中學全科目을網羅한 內容課目은左記와갓다
修身講義 國語講義 作文講義 漢文講義 英文講義 國文法講義 地理講義 外國地理講義 滿洲國地理 日本歷史 東洋歷史 西洋歷史 現代史講義 動物講義 植物講義 鑛物講義 生理衛生 算術講義 代數講義 幾何三角講義 物理講義 化學講義 英語講義 英文法講義 英作文講義 公民講義 世界思潮 其他

模範速成中學講義錄

申込과送金法
一、會費(講義錄十二卷)三圓
一、送料內地四十錢 海外五十五錢
右의會費에送料를添付하야先金으로爲替又는振替口座東京八四八三八番에拂込할事
(振替用紙는어듸郵便局에서나親切하게 그냥내드립니다。切手代用은五分增)
郵便上代金引換으로申込時는 內地는送料共三圓六十錢 海外는送料共三圓八十錢
送金着次第會員名簿에登錄
●講義錄全十二卷合●本會의會員證●會員實用券
右全部同時에嚴重包裝急送함
入會後의特典各條
入會後講義錄工夫上不明確한點은、學校先生에質問함과同樣으로何回라도自由로質問次第本會의專門諸講師가責任을지고親切하게解答하여드립니다
朝鮮日報讀者라記入하고申込하시요
東京·麴町·九段三丁目七番
昭和模範中學會
振替東京八四八三八番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募集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朝日軍手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橫町五三 朝日軍手商會

經濟解說 米穀三大調査 差別材料로利用? 李○○

× 첫재로 朝鮮米의 生産實額을 統計에 依하야 보면

大正元年	一〇、八六五、〇五一
同 七年	一五、二九四、一〇九
昭和二年	一七、二九八、八八七
同 三年	一三、五一一、七二五
同 五年	一九、一八〇、六七七
同 六年	一五、八七二、九九九
同 七年	一六、三四五、八二五
同 八年	一八、一九二、七二〇
同 九年	一六、七一七、三三八
同 十年	一七、八八四、六六九

以上과가티 產米增殖計劃을 거듭하야 最高가 昭和五年의 一千九百十八萬石이 最高記錄이오 그다음이 八年의 一千八百十九萬石이며 朝鮮米의 平均生産高는 一千五、六百萬石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一千萬石을 넘지못하얏는데 新調査方法에 依하면 平年作이라도 二千萬石을 [illegible]하리라는것을 [illegible]

× [illegible] 米穀會議에 그러케 [illegible] 朝鮮米를 一千六百萬石으로 하고 八百萬石이 [illegible] [illegible]

× 三天調査의 [illegible] 九月一日現在 [illegible]

× 아직 日本內地米나 朝鮮米의 [illegible] 지금에 잇서서 [illegible] 朝鮮米의 實收가 [illegible] (完)

米作極度悲觀
旱水害와秋冷曇天으로 粃될憂慮濃厚
九年과恰似 收穫激減?

일은데다가 極度하는 霖雨로 溫害가 甚하야 分蘖이 나쁘고 出穗期도 遲延되며 稔粒數도 적고 一部地方에는 稻熱病이 發生하야 悲觀材料가 山積되어 減收가 豫想되고잇든 昭和九年의 그것과 今年의 狀況으로 자못 憂慮되고 [illegible] 昭和九年의 冷害가 마침 [illegible] 今年의 朝夕秋冷은 特히 甚하야 이러한데서는 [illegible]

石室共販賣約進捗

[illegible] 新義州果京城 大韓汽船所有 [illegible] 來年三月 [illegible]

未曾有의增收로 朝鮮財政好轉? 剩餘金四千六百萬圓

未曾有의 增收를 示한昭和十年度總督府豫算決算은 四千六百二十六萬圓의 剩餘金을 내어서 前年同期보다 三百三十九萬圓으로 剩五分五厘의 增加이다 이를各地方局別로 示하면 京城五十萬二千一百七十七圓 全州二十七萬 八千四百五十一圓 大邱二十四萬 五千四百五十五圓 平壤二十四萬 九千五百五十六圓의 成績이다

이는 財界의 好轉에 伴하야 生한 一般歲入增收의 結果이며 또 純剩餘金二千七百六十二萬圓은 十一年度財源으로서 使用되어 朝鮮財政은 健實한 步調를 示하고 잇다

財務局發表=昭和十年度朝鮮總督府特別會計剩餘金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歲入의收入濟額	三三〇、二一〇
歲出의支出濟額	二八三、九五〇
歲計剩餘金	四六、二六〇

內容

昭和十一年度豫算에計上한剩餘金繰入額	一三、五七〇
昭和十一年度繰越歲出豫算額에對한財源	五、〇七〇
計	一八、六四〇
純剩餘金	二七、六二〇

經濟界消息

○京春鐵道第一回決算=京春鐵道에서는 九月末決算을하고 十月下旬第一回定時株主總會를開催하야 第一期決算案을附議可決할터이며 株主配當은年五分의 建設配當을 決定하얏다

○片倉製絲建築着手=片倉合名에서 京城驛前에 新築計畫中인 片倉生命빌딩은 延坪五百餘坪의 地下一階地上五階의 빌딩을新築키로 決定하고 二十八日工事入札에 附키로되엇다

○朝鮮製絲協會總會=朝鮮製絲協會에서는 在京役員會를開催하야 臨時總會開催件을附議協議한 結果 來十月五日黃海道海州에서 臨時總會와座談會를開催하기로되엇다

商況 【十七日】

○朝鮮永登浦出張所昇格=朝鮮總督府永登浦出張所는 最近 永登浦가 京城의 工業地帶로 飛躍하고잇는 實狀에鑑하야 同驛營業所를 十月一日부터 出張所로 昇格시켜 初代所長에 若松淸治氏를 起用하기로되엇다

紐育自由港開場 中南米進出有望

【大阪電話同盟】大阪商船紐育支店으로부터 本社에到達한 調査報告에依하면 今年二月三日認可를受한紐育自由港區域은 其後諸般의 準備가進捗되어 來十一月부터 開場케되엇다 自由港區域은經濟港外에잇는 스테ー튼의一角에設置한것으로日本의對米貿易에興奮될것은 現在日本品이 完全히 阻止되어잇는 中南米市場에 同港經由로 漸次進出이 可能케되어 日本側에게는 非常한 福音이라한다

產業統制法의施行 規則十月下旬公布

【東京電話同盟】產業統制法施行規則勅令施行은 農林省內의 [illegible] 이라한다

百三、四十斤으로서 玄米一石을 精製할수 잇는것이 昭和九年의 西朝鮮地方은 玄米一石을 精製하는데 正租三百八十斤을 要하엿는바 今年의 作況은昭和九年의 그것과 類似하다고 農林當局에서도 昨今 朝夕의 秋冷과 曇天을 자못 憂慮하고잇다한다

金融方面의 風水害影響
水組關係를重大視

南鮮風水害의 金融에及한影響은 各銀行에서調査中인데 殖銀各支店으로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個人關係金融에 잇서는 回收上何等의 不安이업스나 全滅水利組合에의 金融은 更生水利組合關係의 救濟를 受하든지政府의特別救濟에 依할수밧게업는 狀態로 그形勢는자못 重大視되는一方 一般金融方面도 被害가局限되어잇는關係上 商取引及金融關係에는 何等支障을 招來치안을模樣이라한다

의 兩氏를마저 朝鮮側으로부터 齋藤氏以下 各委員이 出席하야 阪神地方의 朝鮮白袋入米 不實問題에關하야 大阪側의 意向을聽取하고 朝鮮側의 希望을述하야 各各 腹藏업는 意見을 交換協議하야 問題解消에 努力하기로되엇다

朝郵新船五隻買入

朝鮮郵船에서는 七月增資와同時에 四千噸及 五千噸級大型船五隻의 新造計畫을 樹立하야 浦賀、播磨、橫濱各船渠에 發注하야 目下 各其造船中으로 來春

郵便貯金增加 五千六百萬圓

全朝鮮郵便局所의 八月末現在의 郵便貯金은 三百七十一萬四千三百六十一人 貯金額 五千一百九十二萬百十六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人員四十四萬四十二人金額六百九十一萬八千九百九十一圓의 增加이엇다

袋白問題折衝 大阪側入京

朝鮮穀物協會 聯合會內의 米工業統制期成會에서는 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總督府官民係當局과 大阪米穀小賣業組合의 木谷久一、庄野萬平

人絹界의前途 大勢的은樂觀

人絹은 最近 新規設置着手의結果 大阪合으로 說及된이 一部會社에 現物界의 不振과 一部增産하야 外의 實出動이 新局面을 實現하야 目前의 教訓은 五千九百萬圓으로 人絹界 [illegible] 五千九百萬圓으로 [illegible]

重要商品界事情

戒로 一氣下落치는 안흐나 出入未了의關이잇다 ×

그러치만 六十圓臺以下는 深刻을바라기 어려울고 五十八圓가량에 止할것이아닌가? 實勢不振을기다리나 增産이 將來에必然的 現象으로서 人絹界의將來를 悲觀하는 不當하다 [illegible]

若干增加되어다 ×

스테ー플이새로이 登場되어 나오다하나 人絹과가티 完全히商品化키까지에는 相當한 技術과 歲月을 要할것으로 最近中 流行하는 人絹進出이 만흔것도 人絹에對한認識이 漸次訂正되어가는것을 證明하는것이다 ×

世界에 자랑하는 低코스트에다가 聯合會의 需給統制가 完全히된 人絹界의 前途는 當分 樂觀一字에 盡한다 제의벤벨그系의 問題를 問題로 相互交涉會와 和、鐘紡等과 聯合會와의 交涉

險惡이 大阪方面으로부터 다 그러나 벤벨그의 加入問題는 오랫동안의 聯合會의 懸案으로서 商工省도 業界의 圓滿한 統制를 希望하고잇는 만큼 벤벨그問題는 近間何等의 條件附로 圓滿解決될것이며 이問題때문에 人絹界가 再次 混亂에 陷하는일은 업스리라고 信한다 人絹聯合會로서는 벤벨그問題는 簡單히 解決하고 人絹界의 自給策이라도 考究하야 人絹工業의 原料的將來에 備할것이라한다

經濟寸鐵

○海州서 大安券事件發生

還送되는 安券은 떠나지못하나 銀行에 實損업는것을 辨明하나 執務者의 過失에는 돌림업는일

○特히 地方支店의 責任者들 精神차려야할일 너무 貸出競爭에 焦燥한데서 생기는일

○今年年事는 秕로될憂慮가 濃厚하다고 秋收한대자 收穫量이 激減되고 品質이 低劣하리라한다

○日本內地米豐作때문에 米價까지 떠러지니 어쩌잔말인가

株式 新高價로暴騰

前場堅調 今前場은 朝取八十九圓丁、朝新三十五圓八十錢에까지 續騰好勢이고 其他諸株는 伸悩하야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 百三十四圓九十錢、大新二十錢高인 七十一圓丁、鐘新九十錢低인 百七十四圓丁 日產十錢低인 八十三圓三十錢 朝取一圓三十錢高인 八十八圓三十錢 朝新四十錢高인 三十五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日產新二十九圓九十錢 朝石三十六圓六十錢에 好勢이엇다

▲朝取 八八四〇(寄) 八九〇〇 八九〇〇 八九〇〇 八八五〇(引)
▲朝新 三五三〇(寄) 三五六〇 三五六〇 三五六〇 三五五〇(引)
▲鐘新 一七四〇〇(寄) 一七四〇〇 一七三五〇
▲東新 一三五〇〇(寄) 一三五一〇 一三四九〇 一三五〇〇 一三五〇〇(引)

後場暴騰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七十錢에 新高價爆發이고 日產八十四圓五十錢 日產新三十圓三十錢 鐘新百七十四圓六十錢 朝取八十九圓丁 朝新三十六圓七十錢 大新七十二圓十錢에 好勢이엇다

朝取新舊續騰

今前場朝取는 八十九圓丁、朝新은 三十五圓八十錢으로 續騰하야 再昨後引에 比하면 朝取는 十圓二十錢棒上、朝新은 二圓七十錢高이엇다 朝新의 二圓七十錢高는 無理가업다겟스나 朝取의 十圓棒上은 너무人爲的으로서 高價追從飛付買는 조심되는일이다

秋市勢의目標 非常時淸算이냐

低金利政策에依한 利廻更改市勢나 膨脹豫算期待도 벌서 重需株가 代表해버려스고 所謂國策市勢도 大體結末이된 오늘에 秋市勢가바들 傾向은 무엇일가? 이러타할材料가 업는以上 特殊傾向은 업슬것이나 그래도 目標는 잇슬것이다。그것은 一로 非常

强氣의前途觀

東新은 取引所制度改革案이 議會에 提出되지안흘 形勢인것이 判明되니 取引所株獨特의 惡材料에서 解放되어도 當然할일이오 從하야 二、二六事件以前의 狀態로 復歸되드래도 決코過高라 하기어려울것이다 그렇으로 目前은 百三十七圓臺로 反撥되고 即東京百六十圓臺에두어도 無關할일이며 雜株整理가 進捗되면 東新과 雜株의 並進으로 인플레謳歌의 秋高一幕은 期待에 相副케될것가튼데 勿論 中間的波瀾은 覺悟하여야할일이나 增稅의具體的 提示가動機가 될것이며 無理업는 上勢로 揷移될것이라고 强氣는보고잇는모양이다

鍾紡前途洋洋

鍾紡가티 原棉準備가 豐富한會社로서는 米棉의 先高豫想으로 有望視되며 今期製品의 先約에 成功하야 四千萬圓의 未動資本이 今期부터 利潤을 生하는等 鍾紡은 北中進出計畫과 共히前途가 洋洋할 勝勢에轉할때마다

實物前場取引

前高를 助成하리라한다
▲朝鮮製鍊 一八、六〇—一八、九〇 ▲三菱重工業 六、三〇 ▲人造肥料新二六、〇〇 ▲北樺太鑛業三、八〇 ▲도케치鑛業三〇、〇〇 ▲日滿亞麻三、〇〇 ▲滿洲煙草三、〇〇 ▲石川島新 ▲浦賀도크新 ▲大同電力 ▲에라파이新 ▲日本 ▲大同電力新 (取引高六六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取引所國債市場은 一兩日來 國債는 豫期되던 同團이만큼 一般反應이 없는 [illegible] 內債는保合、米貨債는 實過反動으로 五分半 六分半共히 三、五十錢上伸하고 佛貨도 十錢高로引緖되엇다 ▲二回四分利一〇〇、七〇 ▲二回四分利一〇一、三〇 ▲佛貨一九七、五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五三 ▲第三五分利一〇一 ▲二回四分利一〇〇、二五

今年米作觀과 率勢米價一考

今年의米作은 收入後가아니면 確實한數字를엇을수업스나 大略觀測하는바에依하면 朝鮮米作은二千五百萬石 日本內地米作은 六千五百萬石 合計八千石으로 昭和八年度의八千九百二萬九千餘石의 다음가는 豐作을 豫期할수잇는바 本年產米의 率勢米價인 即最高最低의公定價格은 果然如何히 決定될지 昭和六年以來의 日本內地米及朝鮮米의 實收高合한 統計와 떨아서 率勢米價의高下를보면 左記와갓다

昭和六年 實收高七一、〇八八千石 最高二七、四二最低一八、二八
昭和七年 實收高七六、七三五千石 最高二四、四七最低一六、三一
昭和八年 實收高八九、〇二九千石 最高三〇、五〇最低二三、三〇
昭和九年 實收高 六八、五五六千石 最高三二、五〇最低二四、三〇
昭和十年 實收高 七五、三四一千石 最高三三、二〇最低二四、八〇

以上의過去實收高와 率勢米價를 對照하여보면 本年의米作은 昭

六感

株……東新이 五圓臺로 버티다가 다시 三圓臺로 밋그러저지미엇더니 大引亦五圓臺로 반强 ▲日中關係로시원스러지못하지만 市勢가만만치안흔것만은 事實 ▲朝取는 今前場에 八十九圓丁이란 高價에까지 買煽하야 再昨日에比하야 十圓棒上아모리 業績觀買이기로니 너무急치안흘가 사다대리를 뛰다가는 落傷할危險不無 ▲朝取百圓 朝新五十圓소리를 放送하야 마바라를 買付시혀노코 뚜둘겨먹을 心算이나아닌지 念慮

米……일은새벽天動하는소리와 雨雷소리는바로 天國을征服하는듯 氣勢를보이엇스며 旅館寒客에서 輾轉不寐하든 賓客의한숨짓는소리 바로作奏曲을울렷는反落▲京仁地方으로부터 江陵까지는 豪雨를 齎來하엿지마는 南朝鮮은晴天이오 日本內地는 大槪晴天이나 比較的平穩하야 市勢는不知中 瓦落▲朝鮮은 旣히凶作으로 認하는바이나 來米穀年度의 持越米가 例年보다 幾倍나增加될모양이라고 그增加數字가 凶作氣分을엄마를 緩和할모양

期米 頹勢不正 低落

前場低落 昨後場比 二十七圓九十六錢에止하고 前場의 共히 一二十七圓九十六錢에止하얏다 阪地三十圓十五錢인一丁低付을 一只反而하四丁高인 二十八圓丁에始한 阪地三十圓九十錢이 [illegible] 二十七圓六十八錢 後場은 二十七圓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七圓三十八錢高始한 節八十九錢을다시 下向하야 五、六節七十九錢에 떠러지고 七十九錢에 止하다

阪地三〇圓 大關門遂崩壞

日本內地의 豐作이 謳歌되어 遂本非常時의 豫測이 [illegible] 日米線關係 [illegible] 阪地三〇圓의 大關門이 崩壞되지 안코、[illegible] 附近에서는 急反撥하는 光景을 呈하야 大關門攻防戰은 壯烈한 바잇서 昨前場에는 阪地先限은 三〇圓四一錢으로 反撥하엿스나 日本內地의 天候는 表日本一帶에 曇天을 보이고 잇스나 아직 이러타할 異狀이 업서 連日好調를 보이고 잇는것만큼 아모 惡化의 兆가업서 軟派는三

彼岸天候注目 底入도不遠?

昨今의天候는 一陣一雨으로今年의天候도 [illegible] 北朝鮮은 [illegible] 하야 [illegible] 어찌보면 [illegible] 出하야 大勢는 再次瓦落의 步調를 보이고잇다 그러고 二百二十日을 지난後第三日만인 今月廿三日은 秋分卽彼岸인데 所謂彼岸底入이란 觀念이 定期師의 腦裏에 印刻되어 이日까지의 反落을 豫期하고잇다 朝鮮의 凶作은 旣定事實로 昨年보다 二百萬石 乃至 二百四十五萬石의 減收를 免치못할것으로 認定하나 그러나 日本內地米作이 적어도 四、五百萬石의 增收임으로 朝鮮米作의 減收된 程度의 石數를 控除하고도 오히려 三百萬石의 增收임으로大體市勢는 昨年同期보다 低位에잇는것이 妥當하며 딸아서 아직도 賣叩할 餘地가잇다고 某軟派는 主張한다

今日財界 (十七日)

◆米 (單位錢)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市中金融 (單位錢)

◆株 (單位錢)

朝取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和七年度의 七千六百七十三萬五千餘石 八年度의八千九百二萬九千餘石의 中間數字를 斷하게될 으로 率勢米價도 반드시 中間位置에 當할것으로 觀測된다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堂島側의 猛烈買가잇엇스나 三木優勢賣進出로 氣配惡化하야 新低價로 崩하얏고 其後軟派의 防衛買로 下支氣配이엇다

各地正米

京城不動

淸算期近의 暴落으로 氣迷人氣이나마 日來의 氣濃低下로 市勢는無味히 崩치안코 保合이엇다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閑散

期米低로一般이 傍觀이오 僅히 精米側의 買付가 散見되는 程度이엇다 產地持米側도 新穀高를 압두고 形勢에 應하야 賣氣를 보이고잇다

釜山下澁

期米氣弱으로 賣行은 舊態依然히 不捗하나 所持側은 無理에 崩치안코 市勢不變으로 當用小口에 買付되엇다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三三、〇〇

大邱崩落

日本內地沈默과 期米의 新低價示現으로 靜觀하던 所持側은 嫌氣가崩하야 整理的으로 賣拔코저하는모양으로 氣配四十錢崩落이엇다 ㊂三等二九、六〇 四等二九、三〇 一等白米一二、六〇

群山反落

人氣幾分恢復氣味이나 今朝는또 定期의崩落으로 買氣極度로萎縮되어 氣配二十錢의 反落을告하얏다 ㊂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九〇 一等白米三四、〇〇

木浦低迷

期米不許와 實行停頓으로 市勢漸落을 不敢하고 更히 十錢續落이엇다 ㊂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三〇 一等白米三三、〇〇

康益夏商店 米 株 京城 仁川 金益證券

期米 福 吉村榮左工門商店 本店 仁川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電話光化門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六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話一五四番 兼委託販賣

金融 十七日

◆海外經濟 十六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十六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十六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穀 十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七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鎭南浦冲側 [illegible]

◆群山冲側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十七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一七六、六五〇 累計九〇六、八二〇

◆實定 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十七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出來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七日

◆大阪綿米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시카고期米 [illegible]